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0년 9월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0년 9월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 5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37

제 3 장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경제전망 ····· 49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63

ISSUE 분석

高유가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71

부록

경제정책정보 ····· 83

주요경제통계 ····· 88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연 구 위 원	권 영 민
	남 광 희
	박 승 록
	이 인 실
	황 인 학
선 임 연 구 원	김 주 호
	김 창 배

<가나다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산업생산/고용/소비/투자/경기
2. 대외거래부문
   수출입/국제수지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수출입물가
4. 통화·금융부문
   통화정책/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금리/환율 및 외환보유고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미국/일본/EU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통화정책/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 금리/환율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 현황에 대한 인식

2. 향후 정책방향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 : 10%에 가까운 고속 성장세 지속, 성장속도는 둔화

■ 2000년 2/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설비투자의 큰 폭 증가와 높은 수출신장세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

• 설비투자는 일반산업용기계, 특수산업용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등 기계류 전반에 대한 투자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1.3% 증가.

• 수출은 수출 주종품목인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 통신장비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증가세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

<표 1> 국내총생산(95년가격 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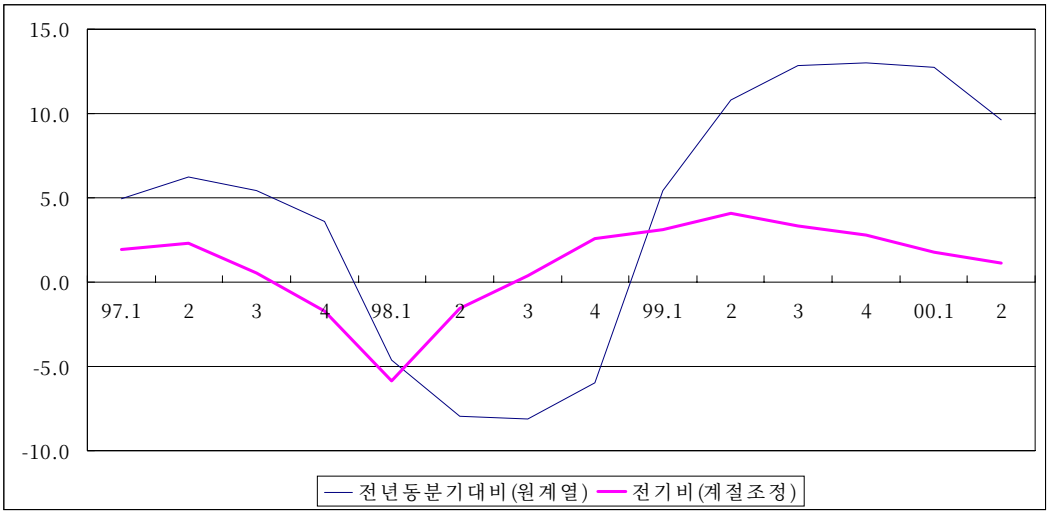
	1998	1999							2000		
	연간	1/4	2/4	상반	3/4	4/4	하반	연간	1/4	2/4	상반
국내총생산	-6.7	5.4	10.8	8.1	12.8	13.0	12.9	10.7	12.8	9.6	11.1
민간소비	-11.4	6.7	10.3	8.5	12.1	12.1	12.1	10.3	11.2	9.0	10.0
정부소비	-0.4	-2.0	-1.7	-1.8	0.1	0.8	0.5	-0.6	1.3	0.5	0.9
건설투자	-10.1	-13.6	-8.5	-11.1	-9.8	-10.2	-10.0	-10.3	-7.0	-4.7	-5.7
설비투자	-38.8	13.0	37.3	25.2	48.5	55.1	51.8	38.0	63.6	41.3	51.7
총 수 출	13.2	9.2	14.6	11.9	20.0	21.0	20.5	16.3	26.2	22.9	24.5
총 수 입	-22.4	27.3	28.3	27.8	32.3	28.0	30.2	28.9	31.9	19.8	25.6

자료 : 한국은행

■ 그러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중 계절조정 실질GDP가 전기대비 1.1%증가에 그침으로써 지난 해 2/4분기 이후 성장속도 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1> 경제성장률(GDP기준) 추이



생산활동 :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승세 유지

■ 생산, 출하 등 생산활동은 내수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생산은 반도체 및 컴퓨터 등 사무회계용기계의 꾸준한 수출증가로 2/4분기와 7월중 각각 전년동기비 18.3%, 19.3%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호조를 지속.

■ 재고는 2/4분기와 7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11.1%, 14.9%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 2/4분기중 전기비 재고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4월중 총선과 파업의 영향.

■ 4월중 자동차 파업 및 총선의 영향으로 76.3%로 크게 하락했던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수출호조가 지속되면서 꾸준히 증가, 7월중에는 81.5%로 높아짐.

<표 2> 산업생산 및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8	1999					2000		
	연 간	1/4	2/4	3/4	4/4	연 간	1/4	2/4	7월
생 산	-6.5	14.1	24.6	28.5	28.9	24.2	23.4	18.3	19.3
· 중 화 학	-3.8	18.5	30.1	34.6	33.1	29.3	27.1	22.3	23.8
· 경 공 업	-15.6	0.5	9.5	12.2	16.3	9.6	10.5	3.9	2.5
출 하	-8.6	14.6	25.1	28.8	31.0	25.1	25.0	17.8	19.2
· 내 수	-22.8	9.5	21.4	27.4	26.1	21.1	23.7	14.6	10.6
· 수 출	24.1	22.2	30.5	30.7	37.7	30.6	26.6	22.1	31.2
재 고	-17.0	-17.7	-15.6	-8.4	2.1	2.1	11.3	11.1	14.9
계절조정전기비	-17.0	-5.8	-0.3	3.0	5.3	2.1	3.1	-0.6	3.8
평균가동률(%)	68.0	70.8	76.0	79.6	79.8	76.6	79.6	79.4	81.5

주 : 재고는 기말기준
자료 : 통계청

고용 : 개선추세 주춤

■ 경기상승세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꾸준한 개선추세를 보이던 고용사정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임.

• 8월중 실업률은 7월에 비해 0.1%p 높은 3.7%를 보임으로써 1월 이후의 실업률 하향 추세가 상승세로 반전.

• 계절조정 실업률도 4.1%를 보여 99년 1월 이후 19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

■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보다는 고용상태가 불안한 일용근로자의 실직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고용관련 지표 추이

	1999					2000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경제활동참가율(%)	58.6	61.0	61.2	61.2	60.5	59.5	61.3	61.7	61.0
취업자(천명)	19,105	20,362	20,695	20,962	20,281	20,313	21,265	21,501	21,253
증가율(전년동기비,%)	-3.3	0.6	3.2	3.2	1.4	6.3	4.4	4.6	3.5
실업자(천명)	1,748	1,435	1,220	1,011	1,353	1,092	840	804	818
실업률(%)	8.4	6.6	5.6	4.6	6.3	5.3	3.7	3.6	3.7
계절조정실업률(%)	7.6	6.7	5.9	4.9	6.3	4.4	3.9	3.7	4.1
상용직 비중(%)	50.9	47.9	47.6	47.1	48.3	47.6	47.2	47.0	48.0
임시직 비중(%)	33.5	33.0	33.3	33.8	33.4	34.8	34.1	34.5	34.2
일용직 비중(%)	15.6	19.1	19.1	19.1	18.3	17.7	18.7	18.5	17.8

자료 : 통계청

소비 : 증가세 크게 둔화

■ 경기확장국면이 조정을 받으면서 소비지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도소매판매액은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할인판매로 소매업의 판매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자동차판매 및 도매업 판매가 둔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

- 내수용소비재출하는 6월에 이어 7월중에도 휴대용전화기의 출하부진이 지속되면서 내구소비재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증가율이 크게 낮아짐.

<표 4>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도소매판매	-12.7	6.9	11.6	17.6	15.7	13.0	14.4	12.4	8.3
·도 매	-8.3	3.9	10.2	15.9	13.3	11.4	13.5	10.7	5.8
·소 매	-11.1	3.9	8.1	13.3	13.9	9.8	12.5	14.0	10.9
·자동차·연료	-34.3	30.3	23.6	41.5	35.9	33.0	26.0	15.6	11.4
내수용소비재출하	-21.0	14.7	18.5	26.0	24.6	21.1	17.7	13.5	1.1
·내 구 재	-27.4	42.8	34.4	63.9	50.3	48.0	35.8	22.0	-9.0
·비내구재	-17.9	4.1	11.5	10.3	12.8	9.6	8.4	9.2	7.1

자료 : 통계청

투자 : 설비투자 호조, 건설투자 부진 지속

■ 하반기 들어서도 설비투자추계 등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의 높은 증가세 지속.

- 기계류내수출하(36.1%)와 기계류수입액(52.8%)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 추계도 산업용기계,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약 30% 증가.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의 발주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조선, 운수, 창고, 통신업 등의 발주증가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

<표 5> 설비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국내기계수주	-30.5	16.7	38.7	22.6	13.8	22.6	18.2	8.3	26.8
·공 공	-45.1	4.4	78.5	-0.4	-5.6	14.2	16.3	-1.2	-45.3
·민 간	-27.3	18.5	33.4	27.1	17.5	24.0	18.4	9.3	37.8
기계류수입액	-52.9	8.0	20.3	45.4	62.0	33.5	63.7	51.4	52.8
설비투자추계	-37.7	12.0	48.1	54.2	61.9	43.5	57.3	34.2	30.0
설비용기계내수출하	-37.7	1.6	36.1	45.6	46.8	32.3	63.8	42.9	36.1

자료 : 통계청

■ 건설투자는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태.

• 지난 해 9월 이후 지속되던 공공부문에서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건설투자의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1/4분기 -6.2% ,2/4분기 -2.4% 에서 7월중에는 -0.2%의 증가율을 보이며 감소폭이 크게 둔화.

■ 상반기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들의 움직임 또한 둔화되고 있어 건설투자의 가시적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문 발주 위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주택발주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반기 50%에 가까운 높은 증가세가 7월중에는 12.7%로 낮아짐.

• 건축허가면적도 공업용 허가면적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상반기 60%대의 증가세가 7월중에는 24.5%로 크게 낮아짐.

<표 6> 건설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국내건설수주	-42.6	-45.3	27.1	13.4	18.0	0.8	75.9	20.0	12.7
·공 공	-21.4	-53.8	-12.6	-35.0	-21.9	-30.9	16.2	-17.8	-44.5
·민 간	-57.6	-30.7	65.7	93.5	117.7	51.7	123.4	50.9	36.6
건설기성	-	-1.0	3.8	3.7	-1.8	1.2	-6.4	-2.4	-0.2
건축허가면적	-55.0	-45.8	22.4	76.6	173.4	42.3	90.6	35.6	24.5
·공업용	-68.2	24.2	177.0	242.6	288.4	179.8	266.0	83.0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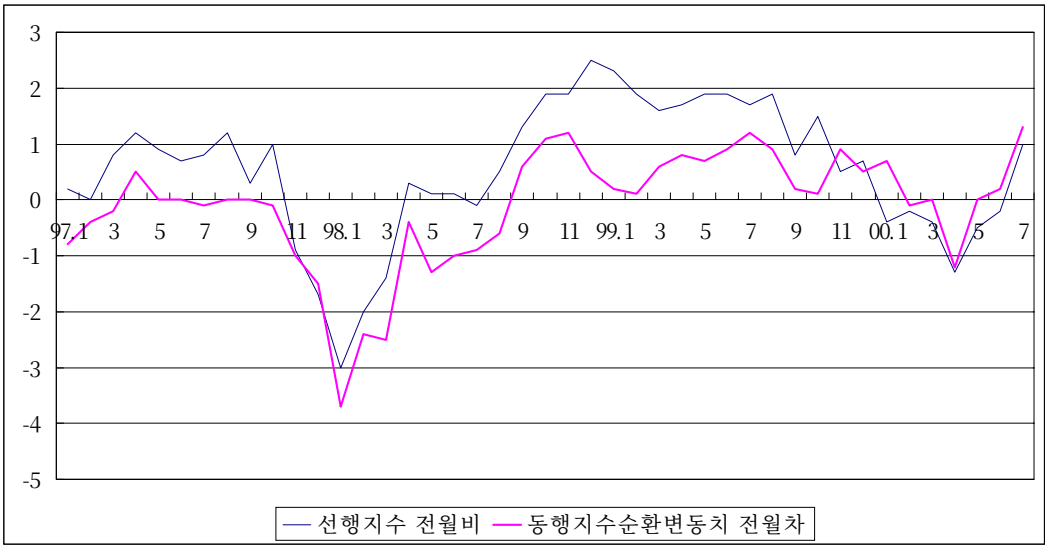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기 : 조정국면 속의 완만한 상승기조

■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급속한 상승국면을 지속하던 경기는 99년 9월부터 경기종합지수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는 조정국면을 겪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종합지수가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경기는 완만한 상승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과 7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선행지수 전월비도 7월에는 상승세로 반전되었음.

<그림 2> 경기종합지수 추이



2. 대외거래부문

수출 : 증가세 확대 (상반기 25.4% → 7~8월중 27.8%)

■ 상반기중 25.4%의 호조세를 보인 수출은 7~8월중에도 27.8%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이는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한 물량증가와 함께 주요수출품목의 단가상승으로 수출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수출품목의 수출호조로 중화학제품이 30%에 가까운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7월중 다소 부진하였던 경공업제품도 8월들어 섬유직물을 중심으로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회복.

<표 7> 품목별 수출증가율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9년					2000년			
	1/4	2/4	3/4	4/4	연 간	1/4	2/4	7월	8.1~20
중화학제품	0.9	5.1	23.1	29.3	14.8	38.6	26.8	30.3	28.7
반 도 체	13.4	12.3	13.4	5.4	10.8	17.4	47.0	58.2	59.1
자 동 차	3.1	16.0	39.2	-1.7	12.3	43.5	-6.4	11.3	4.2
철강제품	-23.6	-24.6	-7.7	6.7	-13.4	22.4	20.7	17.7	25.6
석유화학	-12.4	-11.3	18.9	30.1	5.6	46.1	57.5	31.5	33.5
일반기계	0.3	-4.1	9.6	10.3	4.0	32.6	40.9	43.9	46.2
컴 퓨 터	18.3	64.8	114.8	203.6	103.1	121.4	71.0	72.6	37.1
가정용전자	-4.3	12.1	28.0	67.0	22.5	42.0	17.9	12.5	8.9
선 박	2.4	-22.4	-14.8	9.0	-6.5	43.4	6.8	38.1	-20.5
경공업제품	-7.5	0.0	5.7	20.0	4.4	18.5	15.0	4.0	12.1
섬유직물	14.0	-2.0	5.7	28.2	3.7	20.8	15.2	2.4	17.0
섬유제품	9.7	1.4	3.9	14.0	6.8	11.3	8.0	-0.1	6.9
타 이 어	-1.6	-7.1	-6.4	1.1	-3.7	3.9	-7.6	-9.6	7.0

자료 : 산업자원부

■ 지역별로는 미국 및 일본지역 등 선진국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및 아세안지역 등 대개도국 수출도 빠르게 증가함.

• 8월중 EU지역에 대한 수출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자동차 수출(-50.4%)이 크게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작년 수출호조(146.1%)의 상대적 영향으로 보임.

<표 8> 주요지역별 수출증가율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9년					2000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1~20
선 진 국	-4.7	12.2	18.6	30.0	14.2	31.6	20.1	29.3	23.4
미 국	12.2	26.0	28.8	47.4	29.2	39.3	24.2	31.4	28.5
E U	0.9	14.2	10.7	17.7	11.4	25.4	16.8	29.7	14.8
일 본	5.3	15.5	39.3	56.9	29.6	50.3	38.8	35.2	31.6
개 도 국	-7.0	-5.0	11.0	15.0	3.4	28.5	20.1	17.3	27.9
아 세 안	15.7	7.5	14.5	23.9	15.5	20.3	20.4	18.0	39.3
중 국	-1.8	2.8	28.4	31.0	14.6	40.1	35.5	39.3	50.6
중 동	-22.7	1.6	4.8	5.7	-2.9	29.9	21.1	22.3	9.5
중 남 미	-5.5	-9.4	-10.2	15.4	-2.5	22.9	6.7	5.7	-11.0

자료 : 산업자원부

수입 : 수입증가세 점차 둔화

■ 수입증가율이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의 재상승으로 다시 40%에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경기의 감속과 함께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

• 상반기중 수입증가율은 44.7%를 보였으나 7~8월중에는 38.3%로 다소 진정됨.

• 또한 일평균 수입액도 7월을 제외하고는 4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임.
(4월 : 6.2억달러 --> 8월 : 5.4억달러)

■ 용도별로는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소비재는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표 9> 용도별 수입

단위 : 전년동기비(%)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1~20
원 자 재	-34.7	21.2	47.5	58.5	54.1	45.8	38.2	22.5	40.8	25.0
자 본 재	-36.8	39.3	45.7	59.4	55.7	51.0	55.3	36.5	42.1	35.2
소 비 재	-41.1	27.5	37.7	44.0	32.9	33.2	5.0	34.5	26.6	27.0

자료 : 산업자원부

무역수지 : 7~8월중 23.8억달러 흑자 기록

■ 고유가 등에 따른 높은 수입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크게 높아지면서 7~8월중 무역수지는 23.82억달러 흑자 시현.

• 8월중에는 수출증가율(32.5%)이 수입증가율(36.8%)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8월보다 무역수지흑자규모가 0.8억달러 확대.

<표 10> 수출입 추이

단위 : 억달러,전년동기비(%)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1~8월
통관기준	수출입차	390.3	46.9	69.8	53.3	69.4	239.3	5.1	36.9	8.0	15.9	65.8
	수출	1,323.1	302.5	357.4	350.9	426.0	1,436.9	393.2	434.6	144.8	150.7	1,123.3
	증가율	-2.8	-6.1	2.4	15.1	22.7	8.6	30.0	21.6	23.2	32.5	26.0
	수입	932.8	255.7	287.6	297.6	356.7	1,197.5	388.2	397.7	136.8	134.8	1,057.5
	증가율	-35.5	8.1	22.2	38.6	44.8	28.4	51.8	38.3	39.9	36.8	43.0

자료 : 산업자원부

국제수지 : 경상수지 5월 이후 흑자 지속, 자본수지도 흑자 지속

■ 4월중에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어 5월 이후 흑자로 전환됨.

• 4월중 3.3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5월중 15.9억달러, 6월중 14.6억달러, 7월중 8.1억달러의 흑자를 지속.

• 7월중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된 것은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9.46달러로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영향으로 수입증가율 둔화추세가 반전되었기 때문.

<표 11>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1998	1999		2000				
	연간	1~7월	연간	1/4	2/4	6월	7월	1~7월
경상수지	405.6	149.8	244.8	16.7	27.3	14.6	8.1	52.1
상품수지	416.3	174.0	283.7	24.6	47.5	22.8	12.8	84.9
서비스수지	6.3	-4.1	-6.5	-8.3	-9.8	-5.2	-5.3	-23.4
소득수지	-50.5	-32.2	-51.6	-2.1	-10.9	-2.4	0.5	-12.5
경상이전수지	33.5	12.1	19.2	2.6	0.5	-0.6	0.1	3.1

자료 : 한국은행

■ 외국인 주식투자 유입 및 무역관련신용 도입으로 자본수지는 6~7월중에도 19억달러의 흑자를 보이며 지난 해 10월 이후의 흑자기조가 지속됨.

• 7월중 증권투자수지가 크게 증가한 것은 외국인 주식투자 유입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단기채 매각에 따른 것임.

• 7월중 무역관련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투자수지가 10억달러정도 적자를 보인 것은 예금은행의 외화대출(20억달러)이 있었기 때문임.

<표 12> 자본수지

단위 : 억달러

		1998	1999		2000				
		연간	1~7월	연간	1/4	2/4	6월	7월	1~7월
자 본 수 지		-32.0	-7.3	20.4	84.9	42.4	8.3	10.7	138.0
투자수지	직접투자	6.7	18.2	51.4	2.8	17.9	1.3	-0.8	19.9
	증권투자	-18.8	49.3	86.8	66.8	16.2	4.8	21.7	104.7
	기타투자	-21.6	-72.4	-113.8	15.9	9.2	2.4	-9.9	15.2
기타자본수지		1.7	-2.5	-3.9	-0.7	-0.9	-0.2	-0.2	-1.7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 6월 이후 높은 증가세

■ 4~5월중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가 6월 이후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지속됨.

• 5월까지 전년말 대비 각각 0.3%, -0.5%의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8월에는 2.0%, 0.6%로 높아지면서 6~8월중 소비자물가는 1.7%, 생산자물가는 1.1% 상승.

<표 13>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말비
			1/4	2/4	7월	8월	6월	7월	8월	8월
소비자물가	7.5	0.8	1.5	1.4	2.9	2.7	0.5	0.3	0.8	2.0
농축수산물	6.0	7.3	3.7	0.6	6.5	0.6	0.3	0.7	1.2	1.1
공산품	11.2	0.5	1.7	0.7	1.3	2.1	1.2	-0.1	1.0	1.0
공공서비스	9.5	2.2	3.8	5.2	6.6	8.5	0.1	1.3	1.9	6.3
개인서비스	5.3	-1.0	0.9	2.3	2.4	2.5	0.0	0.0	0.1	2.2
생산자물가	12.2	-2.1	2.2	1.9	3.0	2.5	0.7	0.2	0.2	0.6
농축수산물	3.9	10.1	0.1	-3.9	0.9	-3.6	0.5	-1.5	-1.0	-3.9
공업제품	14.5	-3.3	2.5	2.2	3.0	2.9	0.8	0.2	0.3	0.5
서비스	8.1	-2.1	1.1	1.3	2.2	2.0	0.2	1.0	0.2	1.5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이처럼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 경기상승국면으로 전반적인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제품 등 공산품 가격 상승 그리고 버스요금 및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

수출입물가 : 수출물가 , 수입물가 모두 상승

■ 7월중 수출입물가는 일부산유국의 증산발표에 따른 원유가격이 하락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 6월중의 전월비 상승세를 벗어나는 듯 했으나 8월 들어 원유 등 원자재가

격이 재상승하면서 상승세로 반전.

- 수출물가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강세로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의 가격이 오른데다 PC 및 이동전화기의 수요증가로 D램 및 S램의 가격이 올랐기때문.

- 수입물가는 원유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석유제품가격이 오른데다 우피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

<표 14> 수출입물가(원화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1/4	2/4	6월		7월		8월	
수출물가	31.3	-18.8	-0.2	-1.4	1.2	(0.3)	1.3	(-0.5)	-2.3	(0.4)
수입물가	28.2	-12.1	12.3	8.7	12.1	(1.9)	9.8	(-1.1)	4.6	(0.6)
원 자 재	27.9	-13.2	17.7	12.7	16.3	(2.1)	4.6	(-1.2)	7.4	(0.8)

주 : ( )내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4. 통화 · 금융부문

통화정책 : 신축적기조 유지

■ M3증가율은 지난 3월 이후 5% 초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 최근 대기업 대출 감소 등으로 인한 은행 대출 증가세 둔화 및 해외부문에서의 통화 공급 규모 둔화로 하반기 들어 M2 증가율을 비롯한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금년 상반기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M2 증가율은 7월(37.8%)을 정점으로 8중 35.1%로 하락.

• 이는 6월과 7월중 은행의 채권형펀드 출자, 대출 증가폭 확대 등으로 민간신용이 크게 늘어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증대 등으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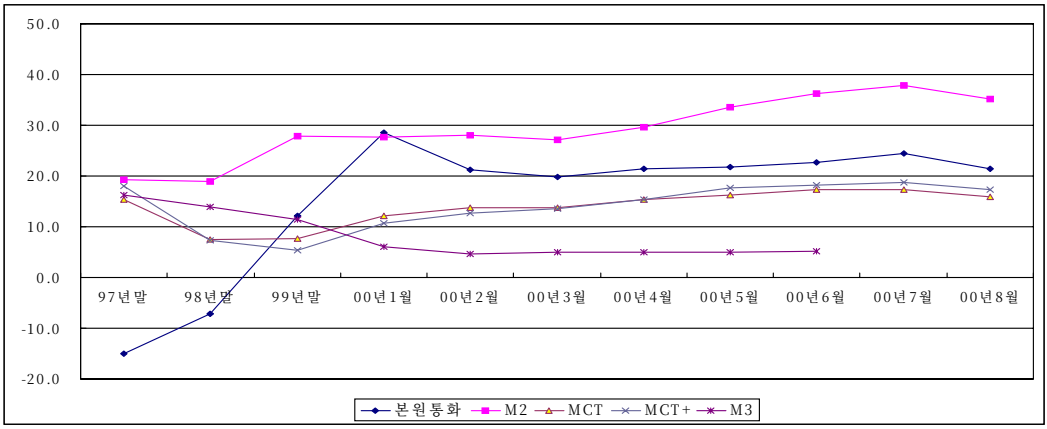
• 8월 중 M2 증가율의 하락은 작년 8월 대우사태이후 투신사의 기능이 위축되고 은행권으로 자금이 대량 이동한 데에 따른 반사효과에 부분적으로 기인.

■ MCT+증가율도 CD 및 금전신탁의 감소에 불구하고 M2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금년 상반기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M2 증가율은 7월(37.8%)을 정점으로 8월중 35.1%로 하락.

■ 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단기금리를 0.25%P 인상한 이래 정부정책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 하에 단기금리를 현 수준에서 고수.

<그림 3> 주요 통화총량 추이



기업자금사정 :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현상 지속

■ 금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폭락과 채권시장 마비로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

• 2/4분기들어 주식발행이 일정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순상환이 지속되고 주식시장의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

• 투신권과 종금사는 기업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며 은행들도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출을 꺼리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 12월에 몰려있는 회사채 회사채의 만기도래 물량과 기업어음의 상환 압력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연쇄적 도산 우려감이 팽배.

■ 금년들어 순상환기조를 이어오던 회사채 발행이 8월들어 순발행기조로 전환.

• 우량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와 프라이머리 CBO 발행 확대(8월중 3회에 걸쳐 2조4,903억원)에 따라 8월중 회사채는 2조8,000억원 순발행되었음.

■ CP발행은 5월과 6월 중 순상환기조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7월이후 은행금전신탁 및 투신사의 매입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순증 추세로 전환.

<표 16>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 중 증감, 억원

	99	2000							
	12	1	2	3	4	5	6	7	8
회사채발행(순)[1]	-21,379	-16,389	-14,837	-10,087	-8,924	-5,228	-10,368	-25,170	27,632
C P 발 행(순)[2]	-118,798	46,318	20,602	22,287	7,677	-17,522	-61,107	25,523	3,501
주 식 발 행[3]	86,878	2,641	10,381	7,614	9,687	14,890	13,150	20,080	3,853

주 : 1) 공모회사채 기준, ABS와 대우그룹 및 삼성자동차 회사채 부도액 제외,
단, Primary CBO 포함.
2) 증권사, 종금사, 은행신탁의 CP 할인액 기준
3)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제외
자료 : 한국은행

■ 하반기들어 은행대출은 2/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8월에는 증가 둔화세가 두드러진 양상.

•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은 은행의 여신확대 경쟁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17> 은행대출추이[1)]

단위 : 증감액, 억원

	98.12	99.12	2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은행(신탁포함)대출[2)]	-37,794	-6,593	52,947	18,428	55,015	92,744	69,798	50,591	67,887	41,041
대 기 업 대 출	-32,179	-35,982	32,753	-287	3,578	27,321	12,573	-10,222	37,959	-5,106
중소기업대출[3)]	-2,761	9,509	15,835	-1,030	12,721	30,591	22,081	15,433	21,384	17,432
가 계 대 출	2,351	30,154	2,442	18,565	25,138	27,677	35,951	30,981	8,851	22,635

주 : 1) 부실채권정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2) 차주별 대출금 합계와의 차이는 공공 및 기타법인에 대한 대출
3) 농사자금대출 제외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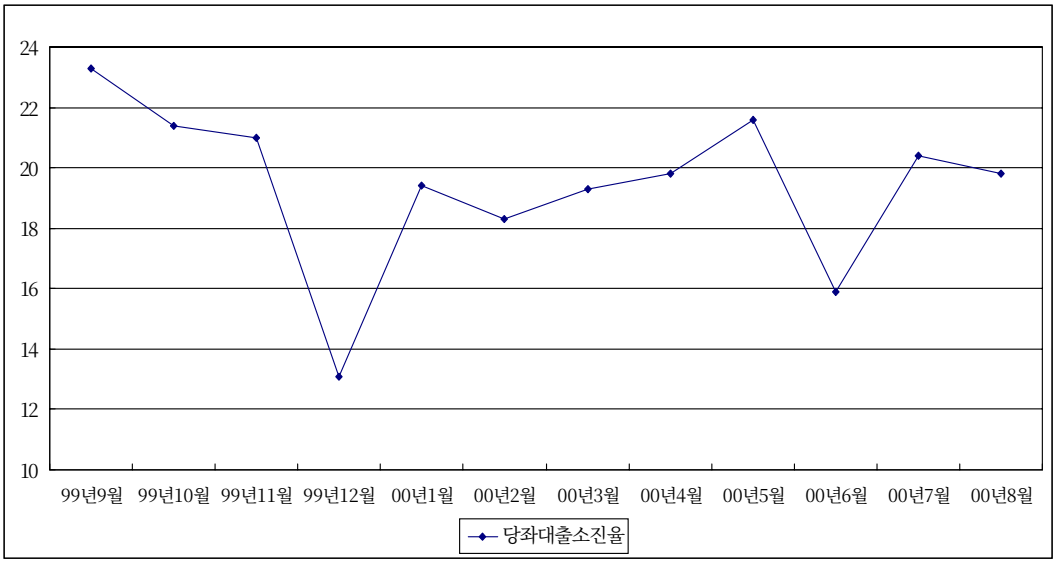
■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중견기업의 경우도 일부 우량기업으로는 자금이 몰리는 반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자금난이 가중.

• 이는 자금시장 불안감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앞둔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위험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점에 기인.

■ 현대사태로 단기 자금시장이 급속히 경색되면서 7월중 20%를 상회하였던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이 8월들어 19.8%를 유지.

• 정부의 기업사정 원활화대책의 일환으로 회사채발행이 가능해진 일부 대기업이 고금리인 당좌대출을 상환한데 기인.

<그림 4> 당좌대출한도 소진율 추이



■ 정부는 경색된 기업자금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6월19일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8월 중반에도 정부가 대규모 추석자금 수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RP 매입을 통한 신축적인 통화공급을 포함 추가적인 「기업자금 안정 대책」을 발표.

•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프라이머리 CBO발행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기업자금 경색이 완화되었으나 그 혜택이 일부 우량기업에 그치는 등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 한국은행이 7월초 은행의 원활한 기업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콜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유동성지원 대출을 시행하였으나,

- 동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의 부실이미지 부각을 우려한 은행들의 소극적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

■ 정부는 기업자금 사정을 원활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3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기등급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도와주기 위해 프라이머리 CBO에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의 편입비중을 1/3이상으로 유도.

-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CBO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40% 이내로 되어있는 CBO부분보증상한을 50% 이내로, 개별 회사채 부분보증 상한을 25%에서 70% 이내로 크게 높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1,000억원으로 한정돼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한도를 폐지함.
-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조5,000억원이 조성된 채권형 펀드의 규모를 9월말까지 10조원으로 늘리고, 8월이후 만기도래하는 23조원 가량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조성할 계획.

<표 18> 기업자금안정대책

분 야	관련 정책	세부 내용
채권시장 활성화	프라이머리 CBO 발행 실효성 제고	- 투기등급 회사채 편입비율 1/3이상 - 회사채보증비율 상향조정 - 회사채부분보증재원 추가 - 동일 SPC에 대한 보증한도 폐지
	채권형 펀드활성화	- 10조원 조성 조기 완료 - 10조원 추가조성
	보증공급 확대	- 8월이후 총 14조원 수준의 보증 지원
대출 활성화	기업대출 유인 제공	- 총액한도대출 배정 평가항목 변경 - RP 지원을 통한 기업금융 지원 - 금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실적 반영
	신용대출 활성화	- 신용대출 기준 재검토 - 신용대출에 대한 면책기준 준수 지도 - 금융기관 검사시 임직원 문책지양
통화정책	신축적 유동성 공급	- 한은의 유동성 신축적인 공급 - 제2금융권에 대한 RP 지원
	추석자금 공급	- 추석전의 자금공급확대 - 임금체불 특례보증 및 종소 자영업자 보증지원
기타	기업자금사정 점검 강화	- 중견 및 중소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어음부도율 : 8월들어 2/4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

■ 작년 하반기 대우사태로 사상 최고수준을 나타낸 이후 금년 1/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던 어음부도율이 2/4분기 이후 제2 금융권을 시작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상승추이로 반전.

- 7월중 금액기준 전국 어음부도율이 0.35%로 6월의 0.16%에 비해 0.19%p나 상승하였으나 8월들어 0.18%로 2/4분기 수준으로 환원.

- 7월중 한스종금 및 세진컴퓨터랜드 등 신규 거액부도 발생과 법정관리중인 삼성자동차의 회사채 부도금액 증가로 어음부도율이 크게 늘었으나 동업체의 부도가 일단락되면서 8월들어 하락세로 반전된 것임.

■ 부도업체수도 금년들어 감소세를 보였으나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경색현상을 반영하여 2/4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8월중 부도업체수는 총 529개로 전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반전.

-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 배율은 상반기 내내 17배를 상회하였으나 7월들어 그동안의 창업열기가 주춤해지면서 15.8배로 하락하였으며 8월에는 동배율이 15.2배로 더욱 하락.

- 그러나 2000년들어 현재까지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 배율은 1999년의 12.4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19>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개, 배

	1997	1998	1999	2000					
	연간	연간	연간	1/4	2/4	5월	6월	7월	8월
전국어음부도율	0.40	0.38	0.33	0.23	0.17	0.19	0.16	0.35	0.18
서 울	0.36	0.30	0.34	0.24	0.16	0.18	0.14	0.36	0.17
전국부도업체수	17,168	22,828	6,718	1,620	1,564	512	549	564	529
서 울	6,686	8,108	2,559	633	574	189	189	225	205
신설법인/부도법인[1)]	3.4	2.6	12.4	17.5	17.9	17.8	17.7	15.8	15.2

주 : 1) 8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 최근 금융시장은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이 모두 심각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부의 수 차례의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크게 위축된 상태.

• 신경제 팀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제2차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본시장의 불안정한 장세가 지속.

• 이에 따라 시중 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우량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단기자금은 고금리장부가 펀드인 투신사의 MMF로 이동.

• 특히 최근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전반의 침체로 간접투자상품의 수익률이 급락함에 따라 상반기중 금융시장 불안양상이 재연.

■ 대우사태이후 지속되어온 시중자금의 은행권 유입세가 최근까지 지속되어 금년 들어 8월까지 은행계정 예금이 65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자금이 단기안정성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 은행의 자금운용은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매입 및 가계 및 부동산 담보 대출에 치중.

- 은행권은 제2차 금융구조조정과 내년부터 실시될 부분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BIS비율 제고 및 은행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대출은 기피하는 양상.

■ 7월부터 실시된 채권시가평가제가 큰 문제없이 정착되고 있고 투신 클린화와 비과세펀드 및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신사 지원정책으로 하반기 들어 투신사의 수탁고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

- 하반기 들어 7월 및 8월 2개월동안 투신사의 MMF로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

- 그러나 투신사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인 장기주력상품에 대한 신규자금 유입은 비과세 펀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

■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은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4분기에는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2/4분기이후 다시 감소폭이 증가하여 8월중 7,700억원 감소.

- 종금사 수신은 금융기관 합병 종금계정으로의 자금유입이 늘어난 데 힘입어 소폭 증가로 반전.

<표 20> 금융권별 자금이동

단위 : 억원, 증감액 기준

		98.12 (잔액)	99.12 (잔액)	2000. 1/4	2000. 2/4	7월	8월	8월말
은행	요구불	216,454	248,114	-43,206	56,740	-32,186	5,304	234,766
	저축성	2,129,251	2,764,397	290,657	226,769	69,014	52,350	3,403,187
	CD순발행	91,856	80,310	10,377	-42,089	15,574	10,881	75,053
	금전신탁	1,558,990	1,178,553	-80,797	-138,874	-57,109	-14,174	887,600
	소계	3,996,561	4,271,374	177,031	102,546	-4,707	54,361	4,600,606
투신	공사채형	1,835,392	1,278,928	-313,946	-234,127	13,473	26,145	483,381
	(장기)	951,264	656,217	-260,326	-135,570	50,493	14,182	324,996
	(단기)	884,128	622,711	-53,620	-98,557	-37,020	11,963	158,385
	(MMF)	133,018	225,224	57,128	-37,388	75,851	27,956	348,771
	주식형	83,155	555,598	93,454	10,937	-411	801	21,030
	소계	2,051,565	1,884,526	-220,492	346,686	102,386	81,047	1,336,563
증권	고객예탁금	37,773	69,919	38,216	-12,000	-3,739	-7,639	84,757
	RP	25,247	13,149	2,921	-1,645	-920	2,902	16.407
	소계	131,393	83,068	41,137	-14,869	-4,659	-4,737	101,164
종금	자발어음	151,922	142,513	6,491	-20,219	461	4,036	120,604
	CMA	223,016	39,252	-12,351	-3,257	-674	-1,923	17,203
	어음매출	64,900	28,985	-3,157	-11,030	-623	-118	15,039
	소계	116,137	210,750	-9,017	-34,506	-836	1,995	152,846
	주식형 뮤추얼펀드	-	-	6,960	-14,596	-10,759	-1,724	36,383

자료 : 한국은행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감과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어려운 상황으로 금년 들어 현재까지 거래소시장을 통한 기업공개는 한 건도 없었음.

<표 21>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 억원

	1998	1999	2000.1	2	3	4	5	6	7	8
유상증자	134,520	173,858	7,764	1,943	1,587	3,486	9,868	3,230	-	847
기업공개	367	153,576	-	-	-	-	-	-	-	-
소 계	134,887	327,434	7,764	1,943	1,587	3,486	9,868	3,230	-	847
고객예탁금잔액	37,773	69,919	94,075	105,972	108,135	100,765	97,143	96,135	92,395	84,756
신용융자잔고	4,674	6,828	5,970	4,647	3,865	3,377	2,576	2,573	2,564	2,476

주 : 고객예탁금와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전산

■ 하반기 들어 종합주가지수는 현대그룹 경영개선계획 발표(5월31일), 남북정상회담(6월13일) 성과에 대한 기대, 미국 주가상승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 6월 중순이후 중견대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 8월 중순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 발표와 동 대책의 실시 지연 등으로 등락을 거듭.

• 8월말 외국인들의 반도체 관련주식의 대규모 매도 등에 따라 큰 폭 하락을 보였으며 9월 들어 유가의 고공행진과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지수는 폭락.

■ 그동안 외국인들은 꾸준히 순매수세를 유지해 온 외국인들은 8월 중순이후 반도체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 축소와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재현 우려 등으로 순매도로 전환.

<표 22>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단위 : 기간중 증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5p
주식순매수(억원)	40,391	-1,737	8,048	26,222	9,197	14,155	-2,048
거래소	37,723	326	8,446	25,363	9,299	13,338	-1,965
코스닥	2,668	-2,063	-398	859	-102	817	-83

장단기 금리 9월중순이후 금융시장불안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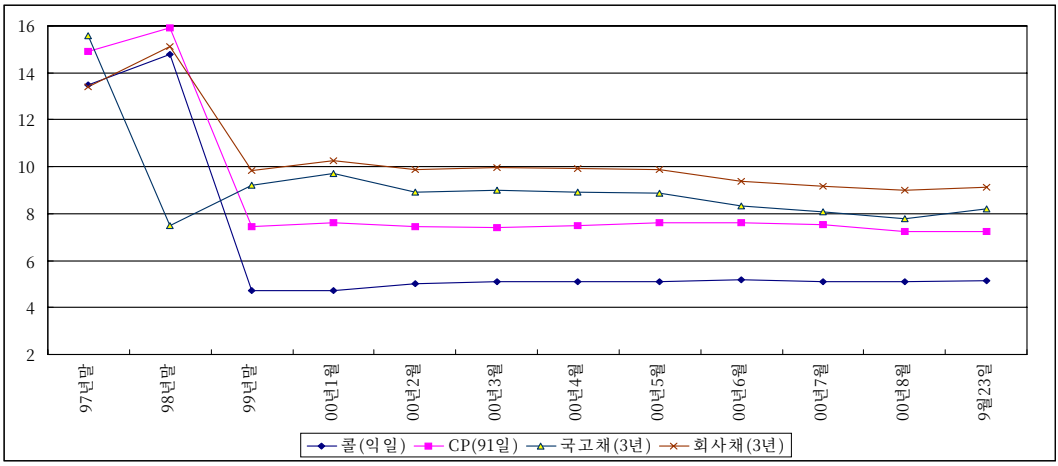
■ 3/4 들어 장기시장금리는 금융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채권공급 확대 예상과 일부 대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설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 하반기 들어 현대그룹의 유동성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정부의 강력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시장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하락.

• 9월 들어 그동안 누적되어온 금융시장 불안감이 외국인들의 반도체 관련 주식매도가 도화선이 되어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짐에 따라 장단기금리가 상승.

• 9월 중순 이후 국고채와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각각 8% 및 9%대 재진입.

<그림 5> 주요 시장금리 추이(단위: 연리(%), 기말기준)



■ 일부 초우량기업의 회사채에 국한되는 A급 회사채 수익률과 BBB급 이하 회사채 수익률과의 격차는 하반기 들어 시장참가자들의 위험회피를 반영하여 상반기 말보다 확대.

• 8월에는 프라이머리 CBO의 기초자산으로서 BBB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신용등급별 금리격차는 7월말보다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표 23> 신용등급별 회사채 유통수익률 격차 추이

단위 : 연%, %p

	2000.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5
회사채 기준금리(A+)	10.12	9.90	9.98	9.94	9.89	9.37	9.17	8.98	8.91
BBB평균[1]	1.37	1.36	1.37	1.39	1.37	1.53	1.75	1.68	1.68
BBB-[2]	1.75	1.74	1.75	1.76	1.73	1.93	2.23	2.20	2.20

주 : 1) 기준금리와의 격차 2) 월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환율 및 외채 현황

■ 원·달러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면서 6월초 1,110원대로 하락한 이후 3개월간 박스권을 형성하고 안정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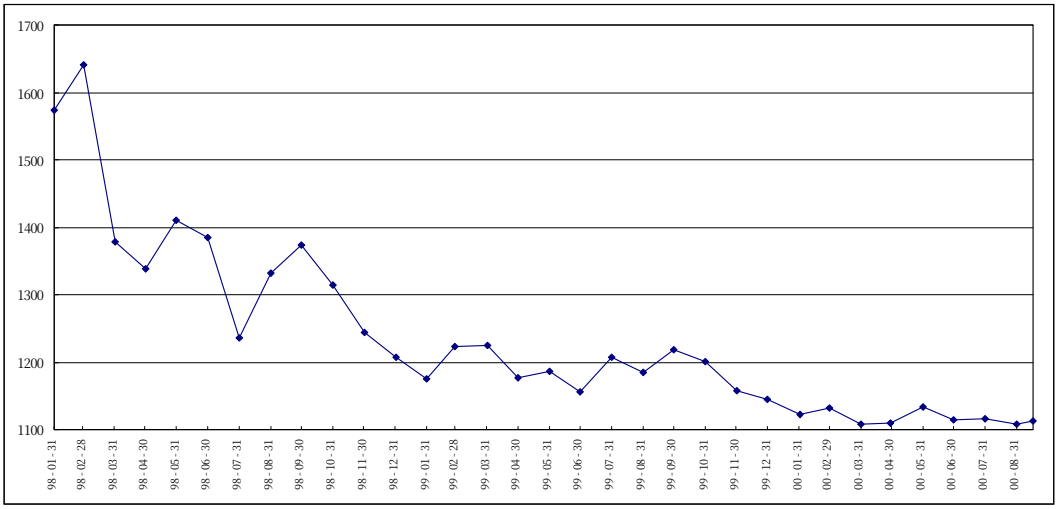
• 8월말 이후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가 지속되고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환율이 1,13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달성의지 표명으로 다시 하락세.

■ 하반기이후 최근 주식시장 폭락 전까지 원·달러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엔·달러환율 등 외부변수나 국내 경제동향에 큰 영향을 받지않고 외환수급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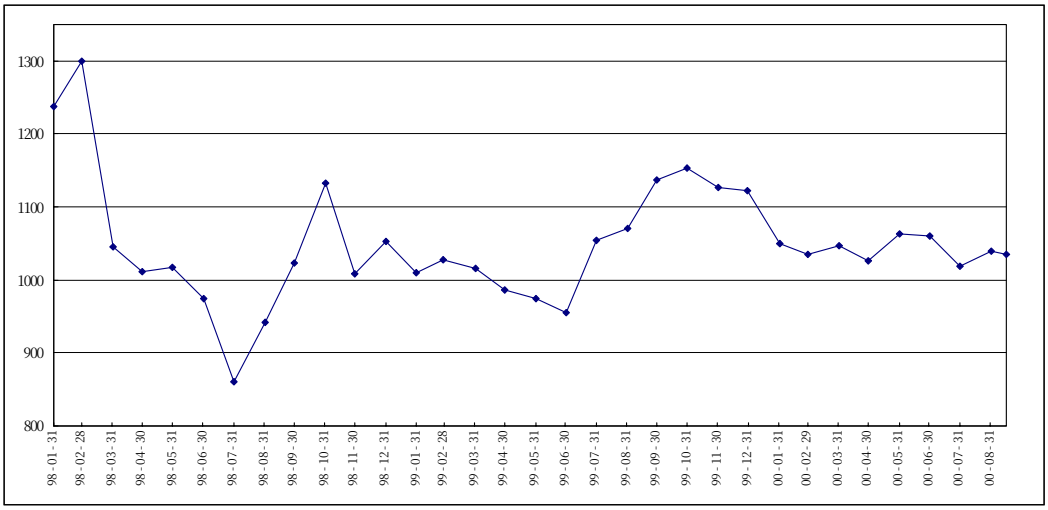
• 주식시장 폭락 전까지는 달러공급요인인 외국인들의 주식매입자금이나 수출대금유입이 큰 폭으로 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수요 요인인 수입결제대금과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었음.

■ 9월 18일 주식시장에서의 블랙먼데이 이후 외국인 주식순매도 지속 불안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9월말 들어 당국의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 발표로 1,120원까지 하락.

<그림 6> 원/달러 환율추이(월말기준)



<그림 7> 원/엔 환율추이(월말기준)



■ 금년 7월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전년말 대비 50억달러 증가한 1,420억달러 규모임.

- 이중 단기외채비중은 2000년 7월말 현재 33.6%로 1999년말 27.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3월이후 2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이처럼 단기외채가 늘어난 것은 외국은행 지점의 차입이 증가했으며 무역업체들이 수출입용 신용을 확대했기 때문.

■ 대외채권은 금년 7월말 현재 1,628억달러로 전년말(1,454억달러)에 비해 174억달러 증가한 규모이며 이에 따라 순채권 규모는 207억달러로 99년 9월이후 순채권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표 24> 외채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A)	2000. 7월말(B)	B - A
총 외 채	159,237	148,705	137,069	142,088	5,019
장 기	95,678 (60.1)	118,008 (79.4)	97,847 (72.1)	94,289 (66.4)	-3,558
단 기	63,559 (39.9)	30,697 (20.6)	39,222 (27.9)	47,800 (33.6)	8,578
대 외 채 권	105,179	128,525	145,399	162,776	17,377
순 외 채	54,058	20,180	-8,330	-20,688	-12,358

주 : ( )내는 구성비
자료 : 한국은행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 금년도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호황 지속, EU 및 일본의 경기회복 그리고 외환위기국가들의 경기호조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IMF는 금년 및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보다 0.5% 포인트, 0.3% 포인트 높은 4.7%, 4.2%로 상향 조정.

<표 25>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량 전망

단위 : 전기대비(%)

	1999	2000			2001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전 세 계	**3.4**	**4.7**	**4.3**	**4.1**	**4.2**	**3.8**	**3.7**
선 진 국	3.2	4.2	4.0	3.7	3.2	3.1	3.2
(미 국)	4.2	5.2	4.9	4.9	3.2	3.0	4.0
(일 본)	0.2	1.4	1.7	1.9	1.8	2.2	2.6
(E U)	2.4	3.5	3.4	2.9	3.4	3.1	2.8
세계 교역량	**5.1**	**10.0**	**10.4**	**9.5**	**7.8**	**8.3**	**7.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0. 9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0. 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00. third quater

■ 내년도 세계경제는 EU 및 일본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각국의 긴축정책 선회 등으로 금년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가 연착륙 하는데 실패하고 국제유가가 30달러 이상에서 유지될 경우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IMF는 미국경제가 금년 말에 경착륙하여 금융긴축을 선택할 경우, 내년도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1.9% 포인트 하락하고 세계 성장률도 1.1% 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

<표 26> 미국경제 경착륙시 연착륙대비 편차

단위 : %포인트

	2000	2001	2002	2003	2004
미국 경제성장률	0.3	-1.9	-2.1	-1.1	-0.7
유로 경제성장률	0.1	-1.3	-1.4	-1.0	-0.5
일본 경제성장률	0.1	-0.8	-0.9	-0.3	-0.2
세계 경제성장률	0.1	-1.1	-1.2	-0.7	-0.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0. 9

미국

■ 미국 경제는 1/4분기의 4.8% 성장에 이어 2/4분기에도 5.3% 성장하면서 경기호황이 지속되고 있음.

• 2/4분기 성장은 설비투자, 재고투자 그리고 정부지출에 의하여 주도되었음. 반면 민

간소비는 증가세가 위축되고 수입신장률이 수출신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성장률 둔화요인으로 작용.

■ 소비는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데 비하여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2/4분기 5.7%)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경제가 하반기 이후 급강하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

• 미연준은 8.22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경제의 총수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생산성 향상이 미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

<표 27>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1998		1999				2000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3.4	5.6	3.5	2.5	5.7	8.3	4.8	5.3
민간소비	4.3	4.9	5.7	5.6	5.0	5.9	7.6	2.9
민간투자	8.2	10.2	3.3	0.0	15.0	17.9	5.1	21.6
주택투자	10.3	8.9	8.2	5.9	-3.1	0.5	3.2	0.0
설비투자	3.5	13.2	9.5	9.6	11.8	9.5	21.0	14.6
CPI	0.3	0.4	0.4	1.0	0.6	0.6	0.9	1.0
수출(십억달러)	228.9	236.0	230.3	234.3	242.0	249.7	256.0	265.1
수입(십억달러)	275.2	281.4	283.0	297.6	314.7	325.9	341.1	354.4
무역수지(십억달러)	-46.3	-45.3	-52.7	-63.3	-72.7	-76.3	-85.1	-89.3

자료 : 미 상무성, 노동성

■ 금년 상반기중 5%대의 고성장을 달성한 미국경제는 하반기부터 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전망.

• 주요 예측기관들은 미국경제가 금년 하반기 이후 잠재성장 경로로 접근(Soft

Landing)할 것으로 예상.

• 실물부문에서도 8월중 전미구매자관리지수(NAPM)가 50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3개월만에 상승하는 등 경기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음.

일본

■ 일본경제는 지난 해 플러스 성장(0.3%)으로 전환한 후 금년 1/4분기에 2.5% 성장하였고 2/4분기에도 1.0%(연율 4.2%) 성장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음.

• 민간소비가 1/4분기 1.7% 증가한데 이어 2/4분기에도 1.1% 증가함으로써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표 28>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1998		1999				2000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1.2	-0.5	1.5	1.0	-1.0	-1.6	2.5	1.0
민간소비	0.0	-0.1	0.9	1.1	-0.2	-1.6	1.7	1.1
민간주택투자	-4.5	-5.1	1.4	12.9	-3.2	-5.8	6.6	-0.8
민간설비투자	-3.9	-5.4	2.3	-2.1	-1.6	3.2	4.8	-3.3
공공투자	-4.3	12.3	6.2	2.8	-8.5	-5.4	-7.5	13.6
CPI	-0.6	1.0	-1.0	0.3	-0.3	0.0	-0.7	0.3
수출(백만엔)	13.2	12.2	11.3	11.7	12.2	12.3	12.4	12.7
수입(백만엔)	9.4	8.5	8.4	8.7	8.9	9.3	9.5	9.8
무역수지(백만엔)	4.8	3.7	2.9	3.0	3.3	3.0	2.9	2.9

자료 : 일본 경제기획청, 대장성, 통계청, 일본은행

■ 일본경제는 하반기 이후에도 일본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세계경제의 확대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

• 경기부양정책과 민간수요의 회복에 힘입어 일본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표 29> 일본의 경제전망

단위 : 전기대비(%)

	1999	2000	2001
실질 GDP	0.5	2.3	2.1
민간소비 기여도	1.2	1.7	2.2
설비투자 기여도	-2.5	6.2	5.9
순수출 기여도	-0.2	0.6	-0.1
CPI	-0.5	-0.5	-0.0

자료 : *Japanese economic outlook for FY00 ~ 01*, 2000. 9, 노무라경제연구소

EU

■ EU경제는 세계경기의 회복,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와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향후 EU경제의 중요한 변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유로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유럽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인가의 여부임. 최근 ECB는 금리를 0.25% 인상하였으나 단기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로화 약세도 지속되고 있음.

<표 30> EU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1998		1999				2000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0.5	0.2	0.7	0.5	1.0	0.9	0.9	0.9
민간소비	0.8	0.7	0.9	0.2	0.8	0.5	0.9	1.0
정부소비	0.1	0.5	0.5	0.2	0.4	0.4	1.7	0.0
고정투자	1.8	0.5	1.9	1.3	1.8	0.4	1.9	0.0
HICP	1.1	0.8	0.9	1.0	1.1	1.5	2.0	2.1
수출(십억유로)	195.9	201.4	187.7	202.9	209.4	229.8	228.9	243.6
수입(십억유로)	171.1	180.8	178.4	188.6	193.2	215.7	229.8	241.6
무역수지(십억유로)	24.8	20.6	9.2	14.3	16.3	14	-1	2.1

자료 : Eurostat

2. 원자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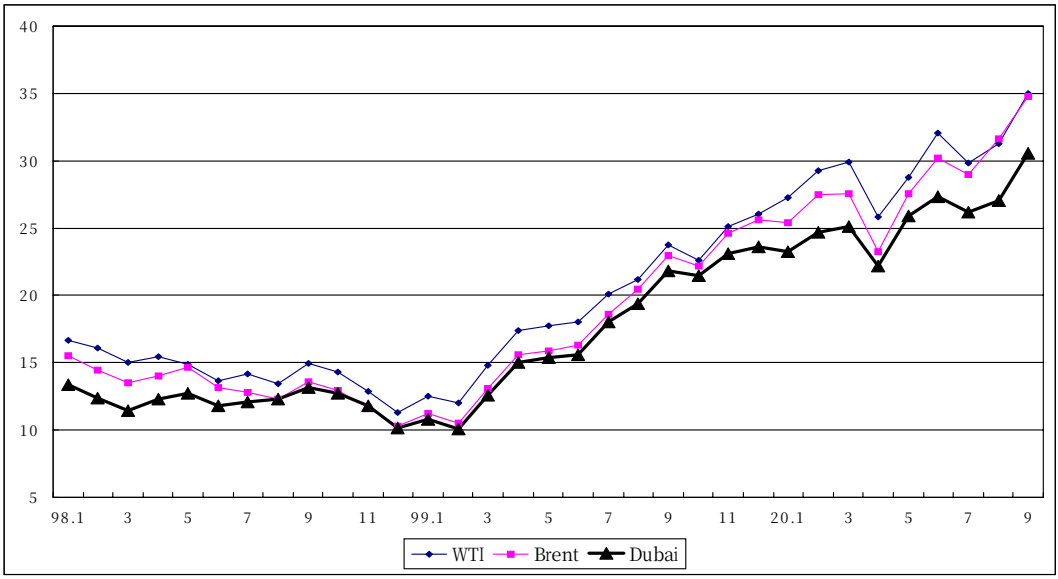
■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가 동절기를 앞두고 재고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최근, 국제유가(Brent유 기준)는 8월 중순 배럴당 30달러선을 돌파한 뒤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며 9월중에는 36~37 달러까지 치솟기도 하였음.

■ 원유의 수급불균형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향후 6개월 정도 배럴당 28~30달러선(Dubai유)을 유지할 전망.

• 세계 주요 경제예측기관은 금년의 국제 평균유가를 배럴당 25~26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8> 국제유가 추이(월평균 $/b)



- IEA에 따르면, OPEC의 원유 생산여력(spare capacity)은 하루 2.2백만배럴정도이나 그중 1.99백만배럴은 사우디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1~2개국을 제외하면 다른 산유국들은 증산의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산유국이 증산을 하더라도 이미 생산 및 수송능력이 한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동절기 수요에 대비한 공급부족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려움.

-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로 국제유가는 급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제유가는 여전이 3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표 31> 세계 원유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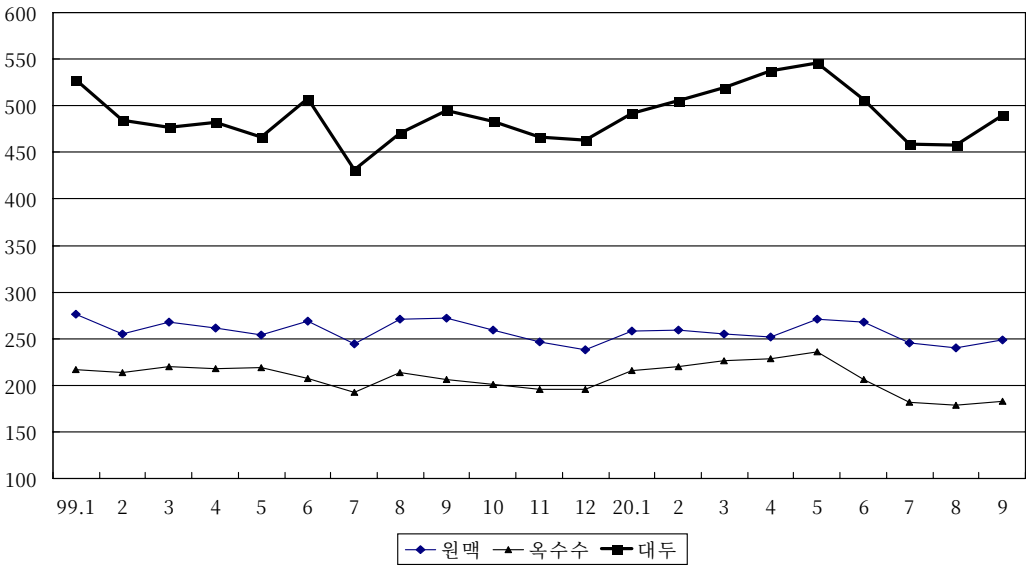
단위 : 백만배럴/일

	1998	1999	2000			
			1/4	2/4	3/4	4/4
세계 석유수요	73.5	74.7	75.0	73.9	75.8	78.5
세계 석유공급	75.5	74.1	75.2	76.2	77.4	78.5
·OPEC	(28.0)	(27.8)	(26.5)	(27.8)	(28.8)	(29.1)
수요·공급차	2.0	1.0	0.2	2.3	1.6	0.0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August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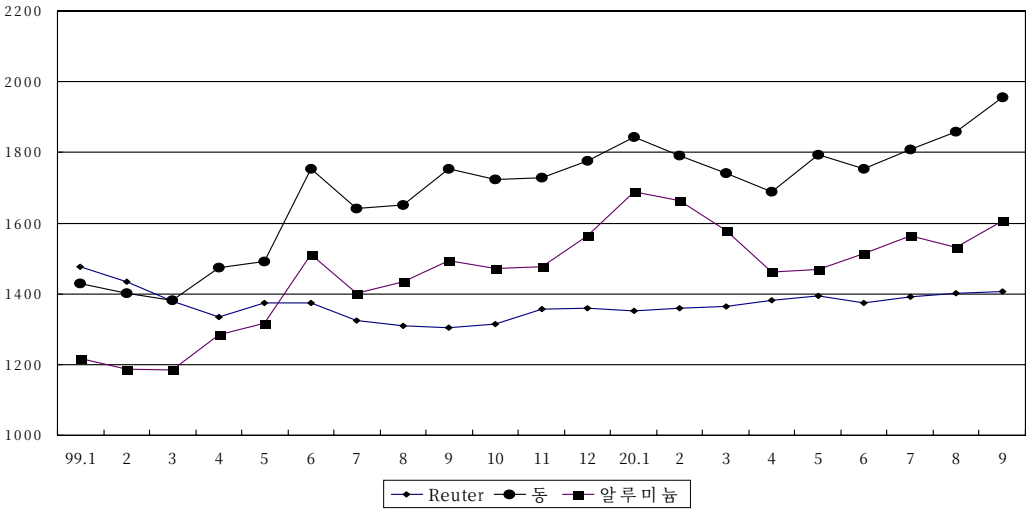
■ 3/4 분기 들어 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원맥, 옥수수, 대두 등 곡물가격도 최근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도 상승세로 반전 .

<그림 9> 주요 곡물가격 추이



■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비철금속은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곡물은 수확기로 접어들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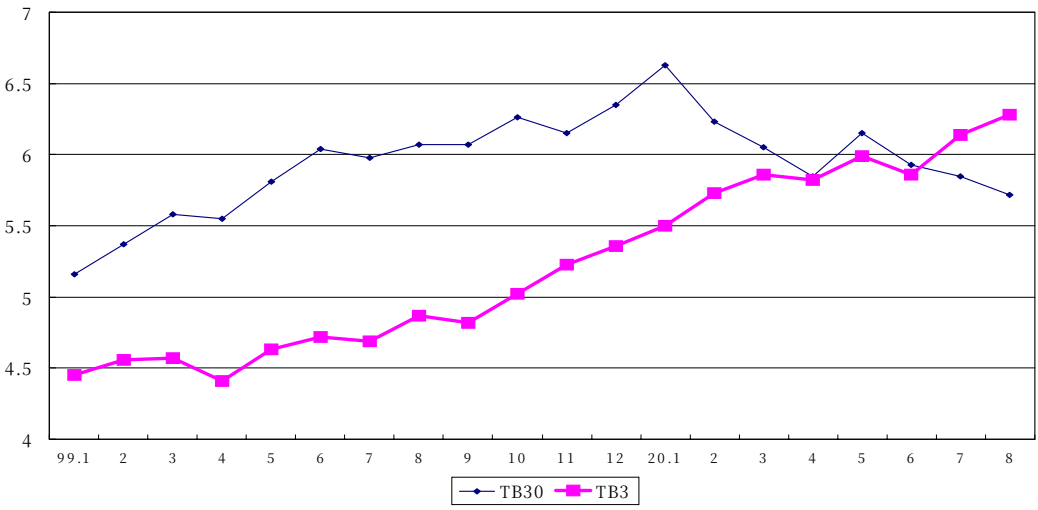
<그림 10> 비철금속과 로이터 지수



3. 국제금리 · 환율

■ 미국의 장기금리는 경제연착륙 기대에 따라 추가금리 인상가능성이 적어지면서 하락추세를 지속.

<그림 11> 미국 장단기 금리 추이



■ 최근, 유로화는 약세를 지속하면서 고유가와 맞물려 미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협하고 유럽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키는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유로화시세는 99. 1 도입당시 1유로당 $1.03에서 $0.85로 21% 이상 하락하였으며 유로화의 약세는 유로의 대외수출을 확대시켜 유로권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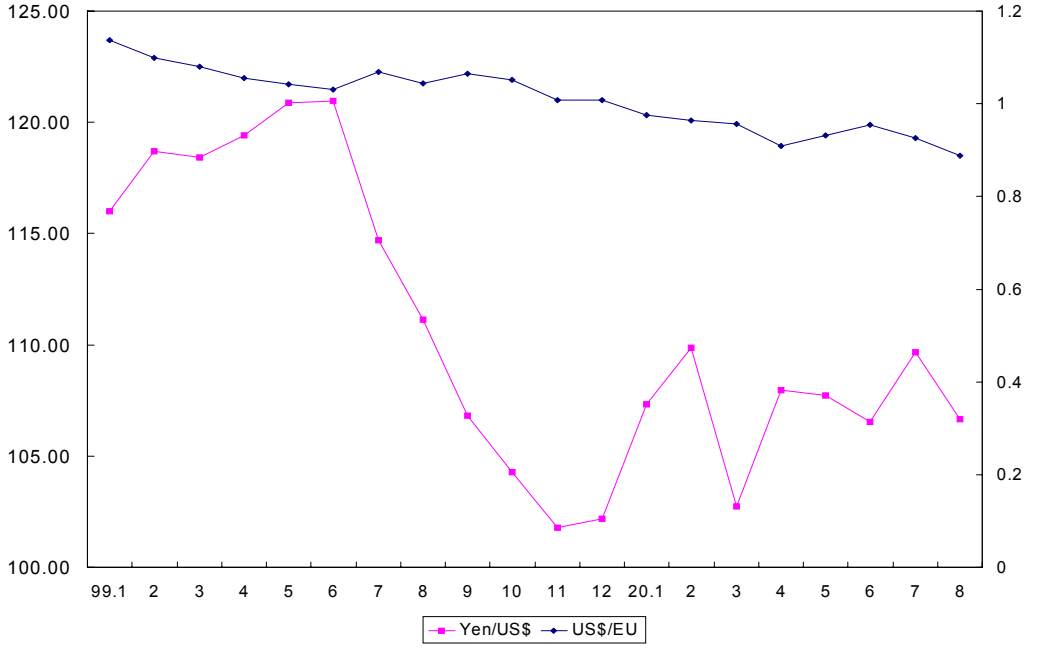
• 고유가와 저유로의 영향으로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미국기업들이 수익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으며 관련기업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

■ 엔화 환율은 제로금리정책 중지 이후에도 108엔대를 유지하여 오다가 8월 23일부터

강세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9월에 들어서는 105~106엔 대에서 움직이고 있음.

- 이는 일본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EU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불안이 우려되어 기조적으로 엔화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그림 12> 엔화 및 유로화 추이



제 3 장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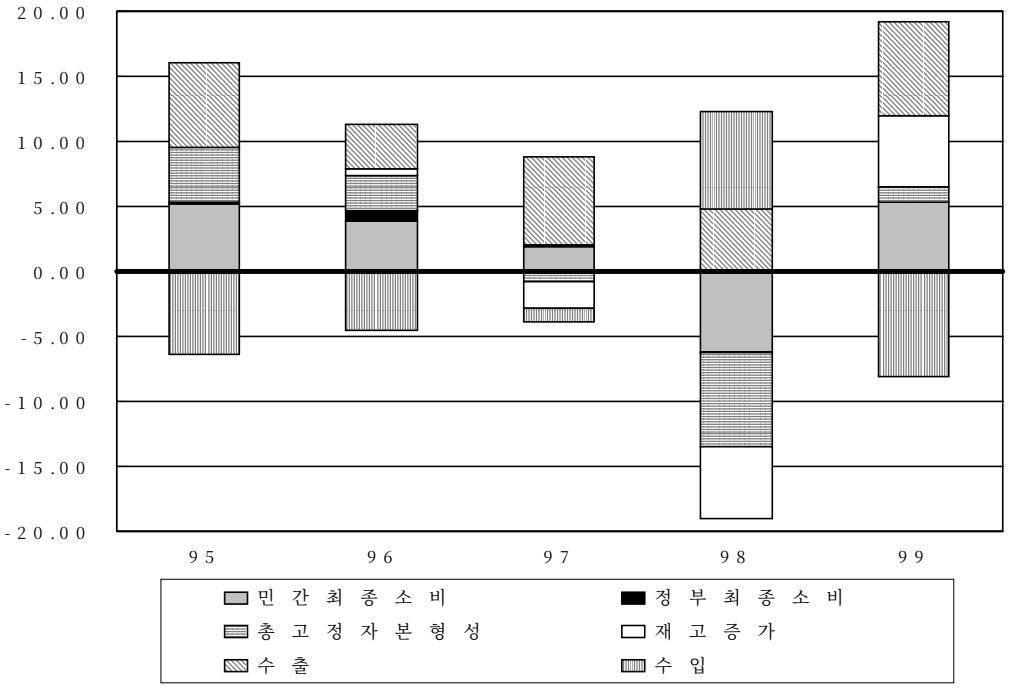
■ 올해 및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작년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1999년의 경제 성장은 소비, 재고 및 수출의 빠른 반등에 기인하였음. 하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이런 뚜렷한 성장 견인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경제는 상반기를 정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며 둔화속도는 지난번 예측보다 좀더 빨라질 전망. 이에 따라 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0.7% 보다 낮은 8.5%내외에 달하고 2001년 중에는 5%내외로 낮아질 전망.

• 우리경제는 왕성한 설비투자와 수출에 힘입어 1/4분기와 2/4분기 중 각각 12.8%와 9.6% 성장을 기록하였음. 하지만 이미 두 분기사이에도 성장세 둔화추이가 보이기 시작했음.

• 설비투자가 1/4분기의 63.6%에서 2/4분기에 41.3%로 낮아졌고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1/4분기 11.1%에서 2/4분기에 9.0%로 둔화됐음.

<그림 13> 최종수요부문별 기여도



-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작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재고 투자도 올 하반기 및 내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에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추세는 모든 총수요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임. 특히 근래에 불안요인으로 대두된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이는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됨.

- 만약 내년 유가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예상 성장률도 더 낮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내년 유가가 배럴 당 35달러로 유지된다면 2001년 경제성장률이 지금보다 1% 정도 하락하여 4%대로 낮아질 수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단기간내에 크게 하락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우리 수출에 대한 수요기반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임. 일본 경제도 IT 부문 민간투자가 증가하는 등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우리수출 전망이 비교적 밝은 편임.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9월에 발표된 IMF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세계경제가 4%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함.

■ 이같은 시나리오를 위협할 가장 큰 요인이 향후 국제유가추세임. 우선 유가의 추가상승은 당장 우리의 수입증대로 인해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고유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경제의 위축을 불러오게 됨. 그에 따른 우리 수출의 둔화는 외수기반의 약화를 초래해 국내 경기위축을 가중시킬 것임.

• 최근 OECD의 발표에 의하면 유가가 33달러 수준에 머물 경우 세계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약 0.4% 하락한다고 함.

• 향후 유가 추세가 성장 및 물가성장 예측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예를 들어 본 연구원의 모형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유가가 내년 배럴당 35달러가 유지되는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은 4.8%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연말까지 계속될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용경색이 악화될 가능성임. 이에 따른 자금순환의 마비가 장기화된다면 생산과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

<표 32> 2000/2001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1999년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 총생산	10.7	12.8	9.6	7.5	5.3	8.5	4.6	5.0	5.5	6.0	5.3
(제조업)	21.8	23.0	16.8	13.8	8.9	15.2	5.4	6.3	7.1	7.7	6.6
총소비	8.6	9.7	7.8	5.5	4.6	6.8	4.2	4.5	5.0	5.2	4.7
민간소비	10.4	11.1	9.0	6.2	5.3	7.8	4.6	4.9	5.4	5.8	5.2
고정자본형성	5.1	23.0	13.2	10.6	7.1	12.9	4.7	5.2	6.1	8.1	6.1
설비투자	38.3	63.6	41.3	21.6	12.4	32.5	3.9	5.7	8.4	10.3	7.0
건설투자	-10.4	-7.0	-4.7	2.0	3.2	-1.3	5.8	4.8	4.0	6.4	5.2
총수출	15.7	26.2	22.9	13.0	8.2	17.0	4.4	5.3	7.8	9.6	6.8
총수입	28.9	31.9	19.8	17.0	11.1	19.3	6.6	8.2	12.2	10.7	9.4
생산자 물가	-2.1	2.1	1.9	2.9	3.4	2.6	4.3	4.0	3.1	1.9	3.3
소비자 물가	0.8	1.5	1.4	3.0	3.6	2.4	4.4	4.3	3.7	3.0	3.8
경상수지	244.8	16.7	27.3	20.3	6.1	70.3	-4.7	3.8	7.8	6.6	13.5
상품수지	283.7	24.6	47.5	29.9	18.9	120.8	3.1	19.3	20.2	15.7	58.3
수출	1451.6	415.0	441.5	429.4	454.2	1740.0	435.4	465.8	468.6	499.0	1868.8
증가율 (%)	9.9	31.9	23.9	17.9	9.1	19.9	4.9	5.5	9.1	9.9	7.4
수입	1167.9	390.5	394.0	399.4	435.3	1619.2	432.3	446.4	448.4	483.3	1810.5
증가율 (%)	29.1	58.1	42.1	35.4	24.8	38.6	10.7	13.3	12.3	11.0	11.8
서비스, 소득 & 이전	-38.9	-7.9	-20.2	-9.7	-12.8	-50.5	-7.8	-15.5	-12.4	-9.1	-44.7
원화환율(기말,원/달러)	1138.0	1106.0	1115.0	1125.0	1110.0	1110.0	1115.0	1125.0	1120.0	1100.0	1100.0
엔화환율(기말,엔/달러)	102.2	102.7	106.0	108.0	107.0	107.0	105.5	106.5	104.5	103.0	103.0
회사채수익률(평균,%)	8.9	10.1	9.9	9.1	9.6	9.7	10.6	10.3	9.8	9.3	10.0

2. 물가부문

■ 소비자물가는 올 상반기중 년 평균 1.5% 증가에 그쳤으나 하반기부터 상승폭이 높아질 전망. 유가, 임금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올 하반기와 2001년에 걸쳐 소

비자 물가가 약 4%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 1999년도에 하락세를 보이던 생산자물가도 올 상반기에 2%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이 상승세는 공업제품 및 서비스가격의 상승만을 반영한 것으로 농축산물 가격은 상반기 중 하락하였음. 따라서 최근의 고유가와 더불어 태풍의 영향이 3/4분기 이후 농축산물가격에 반영이 되면 하반기 생산자물가에 부담이 될 것임. 올 하반기 이후 약 3.3%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가와 더불어 1999년 이후 약 10% 정도로 지속되고 있는 임금상승율도 향후 물가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임. 근래의 임금상승은 외환위기직후 있었던 실질임금하락을 보상하는 의미 외에도 그간 호전된 노동시장조건을 반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난 몇 달 동안 구인인원수가 구직인원수와 비슷해져가고 있음.

<그림 14> 전산업 임금 증가율(전년동기비)

- 최근 들어 해외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원화 환율이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음.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입가격의 증가가 발생하고 이는 추가적인 국내물가 압력요인으로 부상할 것임.

- 향후 예상되는 인플레는 상당부분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에 따른 것이며 총수요 증가에 따른 부문이 없음. 따라서 통화정책 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부문

■ 2000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9년의 실적(245억불)에 비해 크게 준 7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내년에는 흑자 규모가 더 줄어서 13.5억불에 그칠 것임.

• 이번 경상수지 전망수치는 동 연구원이 2/4분기에 발표한 2000년과 2001년 전망치보다 각각 20억불과 30억불이 낮음. 이번의 하향조정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수입증가효과와 원유수입절감효과가 동시에 반영이 된 것임.

4. 금융부문

2001년 하반기이후 본격적 통화긴축기조 전망

■ M3 증가율을 제외한 각종 통화지표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금년말까지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물가상승압력의 우려감으로 통화긴축기조로의 전환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 최근의 물가 상승이 수요측면보다는 비용측면에서 기인하고 있어 단기금리의 인상을 통한 물가상승압력 완화의 효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신축적인 통화기조의 유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예상치 않았던 유가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금년 4/4분기중 단기금리 인상이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그 인상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임.

■ 지난 5월 이후 30%를 상회하고 있는 M2 증가율은 당분간 크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신사의 급격한 자금이탈과 금년 7월 이후 투신사의 수탁고 회복세를 감안할 때 6월까지 5%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왔던 M3 증가율은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1년중에도 금융시장 불안감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우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에 대해 통화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긴축기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

- 만일 유가의 고공행진이 내년 2/4분기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경기속도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도 통화당국의 단기금리 인상압력은 꾸준히 상존할 전망.

기업자금사정양극화 해소 어려움

■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익성이 제고되고 금융권 재편이 이루어져 시장의 신뢰도가 회복되기 전에는 4/4분기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기업자금 양극화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반면 서울보증보험에 8조7천억원을 투입해 보증여력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프라이머리 CBO펀드나 채권전용펀드의 추가조성이 어느 정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4분기중 일부 중견기업의 자금난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4/4분기중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점검 등으로 국지적인 신용경색현상은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

■ 주식시장 폭락과 더불어 채권시장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정부의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 회사채 만기물량이 몰려있는 금년말까지 자본시장 위축현상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연쇄적인 자금악화 가능성.

■ 그동안 장기채권으로의 자금유입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하이일드 펀드 및 CBO 펀드의 만기가 4/4분기중 대거 도래하는 반면 상환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해 채권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

• 8~10월중 하이일드와 CBO 펀드의 만기는 3.1조인 반면 해당 펀드의 자산 중 동 기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CP 등 채권을 회수해서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환능력은 2.9조원에 불과.

• 11~12월중 펀드의 만기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만기규모는 5.6조원인 반면 전체 상환능력은 1.1조원에 불과.

<표 33> 회사채 및 주요 간접투자상품 만기도래 추정

단위 : 조원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사채	2.57	2.65	2.62	3.50	9.76
단위형금전신탁	0.80	0.60	1.55		
뮤추얼펀드	0.45	0.21	0.25	0.66	0.80
하이일드 펀드	0.9(1.5)			5.2(0.7)	
CBO펀드	2.2(1.2)			0(0.3)	
뉴하이일드	0(0.2)			0.4(0.1)	

주 : 주식형 수익증권의 중도환매분은 고려되지 않은 것임
( )은 펀드의 상환능력으로 전체 펀드자산 중 해당기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CP의 규모를

의미함
자료 : 금융감독원, 투신협회, 증권협회

■ 2001년중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경기둔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투자확대여력도 줄어들면서 기업 자금수요도 크지않을 전망.

장단기 금리 2001년 상반기까지 점진적 상승

■ 4/4분기 중 통화당국의 단기금리인상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콜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유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물가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중 금융구조조정 진행에 따르는 시장 불안감 확대를 막기 위해 큰 폭의 단기금리 인상은 어려울 전망.

■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반면 채권시장의 경우 수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리의 추가상승 가능성.

■ 정부가 40조원의 추가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은행부문에 8조1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결정은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나 은행권 내부의 급격한 자금이동을 막고 추가부실이 발생한 은행권을 안정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전망.

•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추가공적자금조성은 물론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

법 등 핵심경제법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정부의 강력한 금리안정의지와 금융시장 불안감에 따른 신용위험 증대 요인이 교차하면서 장기지표금리인 국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은 4/4분기중에는 상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

•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세, 물가불안 심리, 기업 신용경색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연말까지 금리는 점진적 상승세.

■ 정부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나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안이 통과되고 절차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연내 발행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또 연말에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예금보험공사채권(예보채) 발행이 가세될 경우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내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예보채 발행이 쉽지 않을 전망.

• 다만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대규모 예보채가 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단기적으로 국고채 금리를 소폭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4/4/분기 이후 물가상승세 가속화 가능성, 구조조정을 앞둔 은행권의 보수적 자금운용 및 공적자금조성 가시와 회사채 만기도래액의 집중 등의 불안요인이 수급 개선 요인을 압도하면서 장기금리 상승압력 증대.

• 다만 정부의 강력한 금리안정화 의지가 예상되는데다가 기업들의 자금수요 또한 크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2001년중 유가 및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채권시가평가제의 점진적 확대 시행, 신용경색의 완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확대 등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경제 성장률 및 투자 증가세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한계기업의 퇴출 가능성 등의 금리 하락요인도 상존할 전망.

• 2001년중에도 은행 및 투신 등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단기화현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물가상승과 공적자금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상반기까지는 장기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2001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의 성과가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경기둔화세의 영향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장기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

<표 34> 2001년중 장단기 금리 전망

단위 : %

	2000(E)					2001(E)				
	1/4	2/4	3/4	4/4(E)	연간	1/4(E)	2/4(E)	3/4(E)	4/4(E)	연간
콜	4.90	5.08	5.15	5.25	5.10	5.35	5.55	5.60	5.90	5.50
회사채	10.1	9.9	9.1	9.6	9.7	10.6	10.3	9.8	9.3	10.0

주 : 기간 평균기준임.

환 율

■ 금융시장 불안감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부진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 등이 달러화 공급을 제한하면서 원·달러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

나

• 9월 15일 현재 외환보유고는 916.6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거주자 외화예금도 136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원·달러환율의 하락압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35>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달러

	1997	1998	1999	2000						
	12월	12월	12월	1/4	4월	5월	6월	7월	8월	9.15
외환보유고	204.1	520.4	740.5	836.5	846.1	868.2	901.8	903.5	914.3	916.6

자료 : 한국은행

■ 금년 4/4분기에도 외화공급의 우위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년 말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 단, 4/4분기중 구조조정의 지연되고 금융시장이 지속될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2001년 중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의 둔화 등으로 대내적으로는 원화 절하요인이 우세할 전망임.

• 다만 대외적인으로는 미국의 경기후퇴가 가시화되면서 일본경기의 회복세가 두드러져 엔화가치의 점진적 상승 가능성이 높아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상승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임.

• 내년 중 원·달러환율의 향방에는 주식시장회복에 따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이 큰 변수이나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 기준 1,110원에서 형성될 전망.

<표 36> 2000년중 환율 전망

단위 : %

	1999.12	2000(E)				2001(E)			
		1/4	2/4	3/4(E)	4/4(E)	1/4	2/4	3/4	4/4
원·달러환율	1138.0	1106.0	1110.7	1125.0	1110.0	1110.0	1125.0	1120.0	1100.0
엔·달러환율	102.2	102.7	106.0	108.0	107.0	105.5	106.5	104.5	103.0

주 : 기간말기준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 금년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12.8%를 기록하면서 경기정점 논란이 있었지만 2/4분기 중에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지는 않았음.

- 2/4분기중 소비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내수부문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수출과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세를 이끌었음.

■ 그러나 3/4분기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 유가 급등 등의 외부충격이 가해지고 대우차 매각 실패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점증하고 있음.

- PC수요의 감퇴가 예상되면서 64DRAM 현물가격이 $9.22(7월 13일)에서 $7.31(9월 15일)로 급락함.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전자의 주가급락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경험.

- Dubai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0('99. 2)에서 $29('00.9.22)로 폭등함에 따라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음.
- 포드사의 대우차 인수 포기로 인하여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지연이 예상되면서 주가하락, 금리 상승,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불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현재의 경기상황은 1/4분기중 단기적인 경기정점을 지났지만 경기확장국면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가 급등,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서 경기둔화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됨.

- 외부 충격과 더불어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실물부문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함. 다만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수출호조로 인한 경기둔화의 완충을 예상해볼 수도 있음.

2. 향후 정책방향

(1) 유가급등 등 외부충격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

■ 유가 급등, 반도체 가격 하락 등과 같은 외부의 공급충격에 대하여 경제정책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상당히 적음.

■ 다만 환율 및 물가 변화를 통하여 충격을 가능한 흡수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키는 노력은 필요함.

■ 유가 상승과 관련한 정책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비용견인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예상되므로 향후 경제운용 목표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상승은 기본적으로 負의 공급충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용상승분을 가격상승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면서, 경제운용 목표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탄력세율 하향조정 등의 완충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과소비 행태를 지속시키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비가격 정책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단속비용(enforcement costs)을 초래하고 실효성 또한 의문시됨.

• 정부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이 일시적 현상일 경우 탄력세율 하향조정 등 완충정책을 펴고, 지속적 추세일 경우 국내유가 인상,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칠 계획임.

• 이러한 정책대응은 일단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고유가 추세의 지속이 예견되고 있고, 또한 유가급등 현상의 지속성 여부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대응이 현실적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임.

(2)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정책 제언

■ 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경제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 경제 구조조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구조조정 작업의 지연은 신용경색 현상을 지속시켜 실물부문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속하고 원칙에 입각한 금융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는 경제적인 효율성 증진 등의 뚜렷한 가이드 라인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주도의 불량은행의 처리 방안으로 채택되어서는 안됨.

•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권 구조조정 방안은 부실금융기관의 대형화라는 정책실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단기적으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원통화 창출기능을 가진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통하여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함.

■ 이와 아울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거시정책 및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 관련해서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기여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큼. 일본 정부는 재정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경기부양, 구조조정, 공적자금 조성 및 균형재정기조유지의 세 가지 주안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음. 결국 경기침체의 장기화, 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라 세수감소가 지속되어 균형재정이 불가능해졌음.

•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균형재정원칙을 고수하되 필요한 재정의 사용은 실기하지 않도록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결국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함. 금융권 구조조정의 기본방향도 모두를 살리려는 집단주의적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강자만을 추려내는 냉엄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공적자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입원칙을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고통과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정부부문 및 금융구조조정을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임.

• 그리고 회생위주의 공적자금 투입은 지양되어야 하며 예금 대지급용에 한정하여 공적자금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하여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까지도 고려하여야 함.

• 만약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개입이 개시되었을 때 취약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벗어나 자구노력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ISSUE 분석

高유가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1. 유가 충격의 파급효과
2. 유가급등 등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방안

부 록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ISSUE 분석

高유가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1. 유가 충격의 파급효과

(1) 최근 유가 동향

■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상승기조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여 1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

• 9/22 현재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배럴당 32달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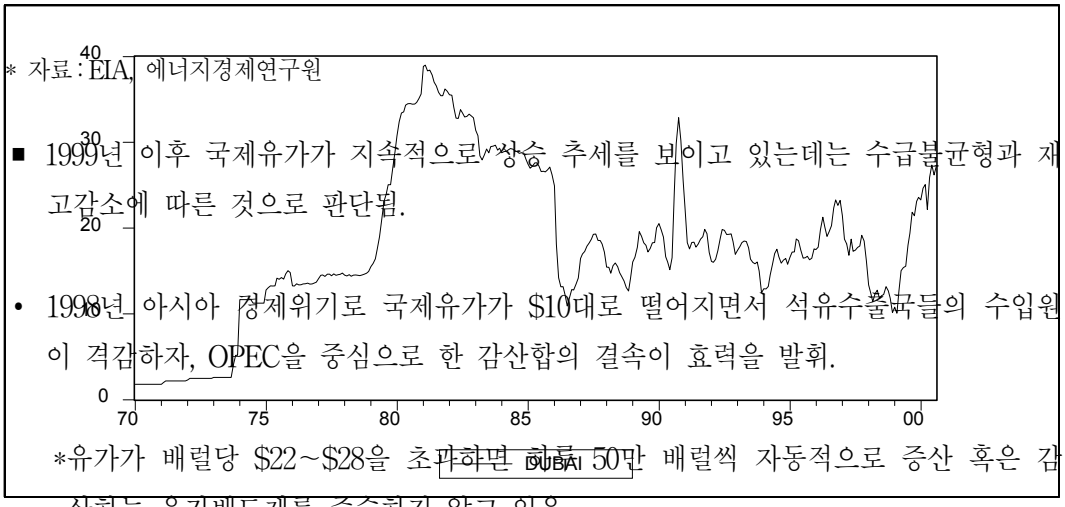
<표 1> 최근 국제 현물유가 추이

단위 : 달러/BBL(기말)

	1998년	1999년	2000년				
			1/4	2/4	7월	8월	9/22
Dubai	10.68	22.76	24.30	25.36	24.08	29.12	29.06
WTI	12.16	25.71	27.94	29.03	27.42	33.08	32.03
Brent	11.04	25.21	26.64	28.26	26.46	35.02	30.94
평균도입단가	13.72	16.90	25.63	26.39	29.46	27.57	-

자료 : 재경부
주 : 도입단가는 평균치

<그림 1> 국제유가(Dubai현물 : $/bbl)추이



* 자료 : EIA, 에너지경제연구원

■ 1999년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는 수급불균형과 재고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국제유가가 $10대로 떨어지면서 석유수출국들의 수입원이 격감하자, OPEC을 중심으로 한 감산합의 결속이 효력을 발휘.

*유가가 배럴당 $22~$28을 초과하면 하루 50만 배럴씩 자동적으로 증산 혹은 감산하는 유가밴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의 활황,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의 회복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 단기적으로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계절적 수요가 증가.

• just-in-time 재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석유제품 재고량이 낮은 수준을 유지.

(2) 향후 유가 전망

■ 현재의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계절적 수요가 감소하는 내년 봄에 가서는 현재와 같은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 정부가 9월 22일, 3,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단행하자 고유가 행진이 진정되고 있음.

• 고유가가 세계경제의 침체를 초래하여, 비산유국뿐만 아니라 산유국에도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1, 2차 오일쇼크를 통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일부에서는 내년도 유가를 배럴당 $40까지 예상하기도 하지만, CGES(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는 OPEC이 하루 2,930만 배럴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년 4/4 분기중 배럴당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

• IMF는 내년도 세계경제전망에서 유가를 금년도의 배럴당 $26.5보다 오히려 낮은 $23로 전망.

(3) 유가급등의 경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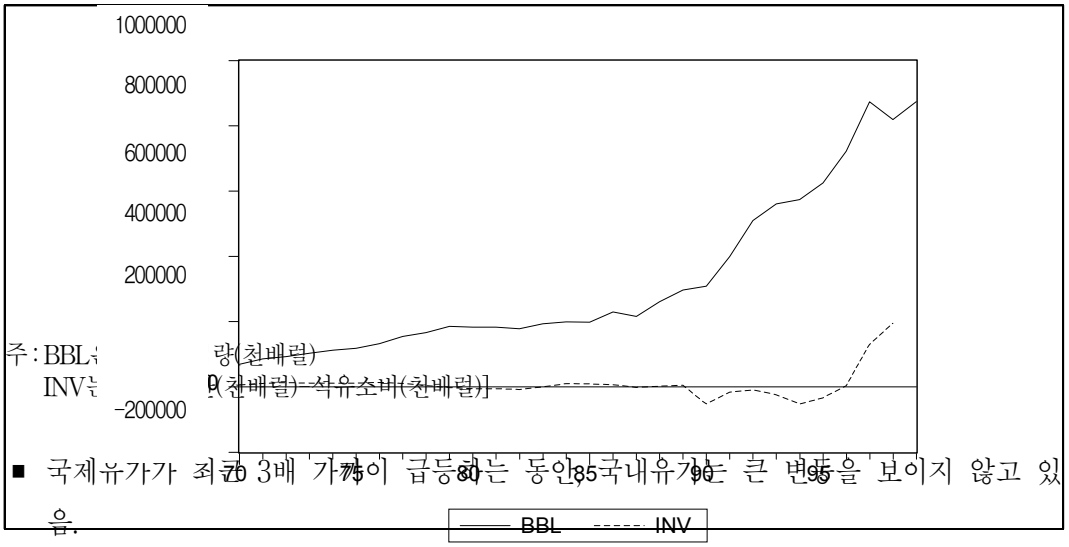
가. 석유의 경제적 비중

■ 99년도 연간 원유도입량은 8.7억 배럴에 달하였으며 올해 원유도입액은 약 9억 배럴에 달할 전망.

• 금년 1~8월중 원유도입량은 6.0억 배럴로 전년동기에 비해 4.2% 증가.

• 98년도 석유재고증감(석유생산-소비)은 약 2억 배럴에 달하여 국내소비 이상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 이는 국내 정유사들의 설비확장경쟁에 따른 것으로 석유제품 수출을 감안하더라도 약 1억 배럴의 수입감소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

<그림 2> 원유 도입량



주 : BBL=
량(천배럴)
INV=
P(천배럴)-석유소비(천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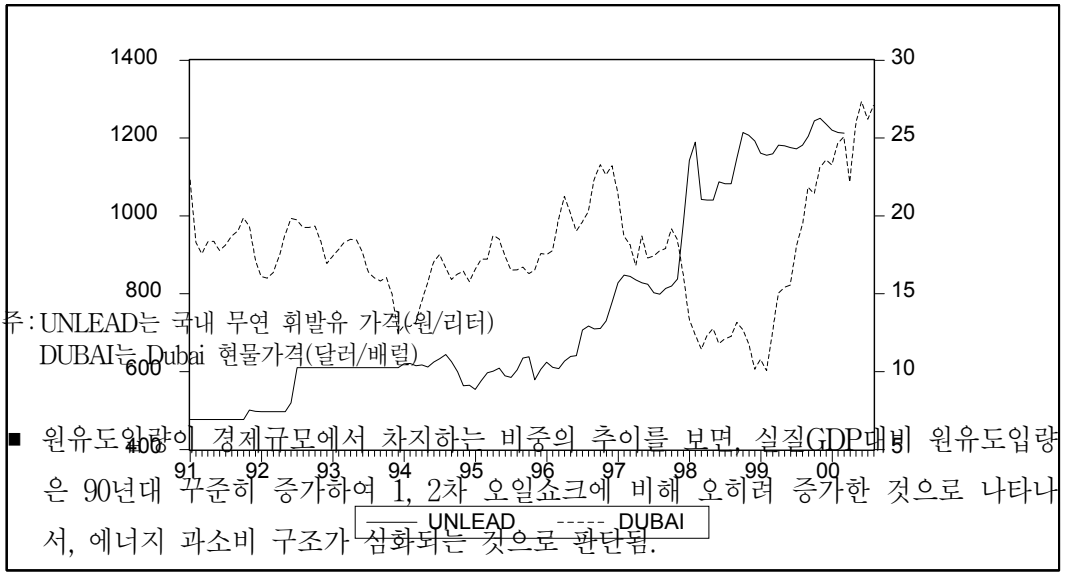
■ 국제유가가 최근 3배 가까이 급등하는 동안, 국내유가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Dubai 현물가격('00.8~'99.02) $\frac{27.07\ \$/bbl}{10.07\ \$/bbl} = 2.7$

국내 무연 휘발유가격 : $\frac{1,300\ ₩/l}{1,155\ ₩/l} = 1.1$

■ 그러나 국내유가의 경우 98년중 원화평가절하와 세율인상 등으로 이미 상승하여 91년초에 비해 현재 2.7배 오른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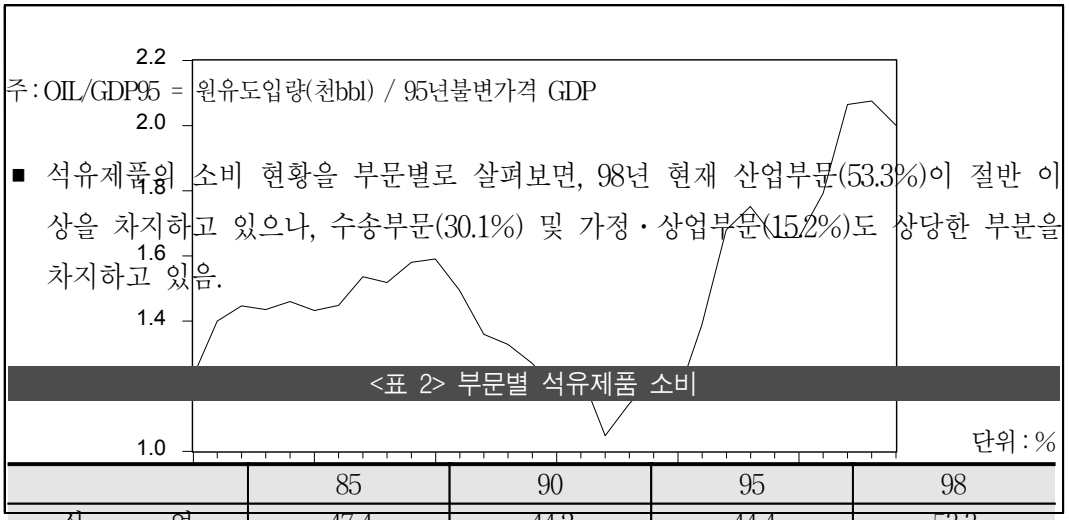
<그림 3>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주 : UNLEAD는 국내 무연 휘발유 가격(원/리터)
DUBAI는 Dubai 현물가격(달러/배럴)

■ 원유도입량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실질GDP대비 원유도입량은 90년대 꾸준히 증가하여 1, 2차 오일쇼크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원유도입량의 대GDP 비중



주 : OIL/GDP95 = 원유도입량(천bbl) / 95년불변가격 GDP

■ 석유제품의 소비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98년 현재 산업부문(53.3%)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송부문(30.1%) 및 가정・상업부문(15.2%)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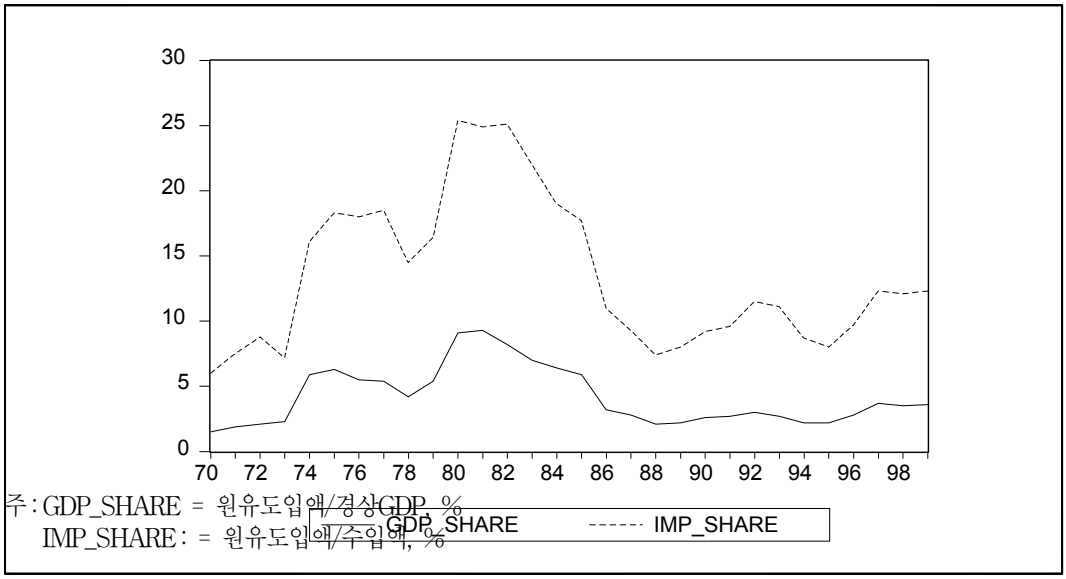
	85	90	95	98
산 업	47.4	44.2	44.4	53.3
수 송	29.4	31.1	32.6	30.1
가정・상업	15.6	19.6	21.3	15.2
공공・기타	7.6	5.0	1.7	1.4
계	100.0 (22,579)	100.0 (45,252)	100.0 (82,876)	100.0 (86,526)

주 : ( )내는 1,000TOE

■ 원유수입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IMP_SHARE)은 1차 오일쇼크(18.5%), 2차 오일쇼크(25.4%)에 비해 낮은 12.3%(1999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음.

■ 원유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GDP_SHARE)은 1999년 현재 3.6%로 1차 오일쇼크(6.3%) 및 2차 오일쇼크(9.3%)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림 5> 원유수입액의 대 GDP, 전체 수입액 비중



주 : GDP_SHARE = 원유도입액/경상GDP, %
IMP_SHARE : = 원유도입액/수입액, %

■ 그러나 내년중 평균 유가가 $35에 달하면 원유도입액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 경우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의 정도는 1차 오일쇼크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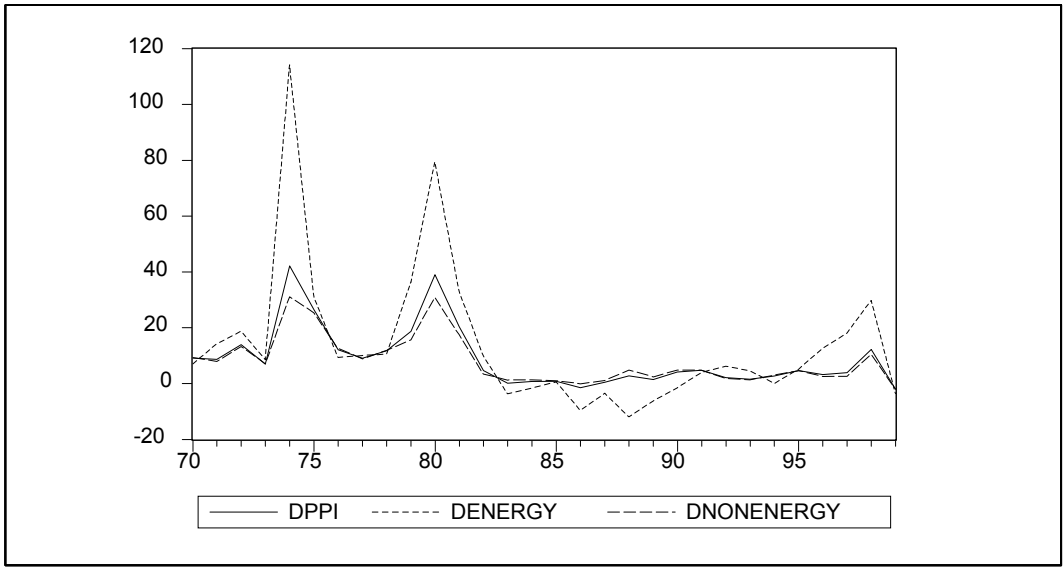
■ 에너지 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1, 2차 오일쇼크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생산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

• 그러나 이외의 기간 동안에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

• 1997~1998년의 에너지가격 상승은 원화절하 및 세율인상에 따른 것.

<그림 6> 생산자 물가 추이



주 : DPPI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DENERGY는 에너지 물가지수 상승률(%)
DNONENERGY는 에너지이외 물가지수 상승률(%)

나. 고유가 파급효과의 국제비교

■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할뿐만 아니라 산업 및 가계 모두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가변동에 따른 악 영향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GDP규모는 전세계 1.1%에 불과하지만 석유소비는 전세계 소비량의 2.8%를 차지.

<표 3> 국가별 석유 소비(1998)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중 국	대 만	전세계
석유소비(백만톤)	93.3	852.4	255.0	80.5	190.3	37.2	3,389.0
세계점유비율(%)	2.8	25.2	7.5	2.4	5.6	1.1	100.0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아시아 국가중 우리 나라가 고유가에 따른 성장률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전망됨.

<표 4> 유가상승으로 인한 아시아 경제의 영향

단위 : %

국 가	한 국	필리핀	태 국	대 만	홍 콩	중 국	인 니	말 련
성 장 률*	-1.2	-1.5	-1.2	-1.0	-0.6	-0.3	1.0	1.0
무역수지**	-1.7	-	-1.6	-1.0	-0.3	-0.2	1.0	1.0

주 : * 내년 평균유가를 배럴당 $33로 가정. 자료 : 메릴린치 증권
** 유가 $10 상승시 GDP대비 무역수지 변동폭을 표시. 자료 : 무역협회

다. 고유가의 내년도 거시경제 파급효과

■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말까지 국내도입단가를 25달러로 가정한 기존 baseline 전망(시나리오 A) 대비, 배럴당 30달러(시나리오 B) 및 배럴당 35달러(시나리오 C)로 가정할 경우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비교 추정.

<표 5>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영향

단위 : %, 억불

	2000년			2001년		
	A	B	C	A	B	C
GDP성장률	8.7	-0.3	-0.5	5.8	-0.6	-1.0
물가상승률	2.2	+0.3	+0.5	3.1	+0.9	+1.5
경 상 수 지	87.0	-15.9	-28.2	44.4	-35.6	-65.8

주 : ( )내는 baseline 시나리오 A 대비 증감을 나타냄(단위: %p, 억불)
시나리오 A : 기존 baseline 전망(배럴당 $25)
시나리오 B : 배럴당 $30

시나리오 C : 배럴당 $35

■ 시나리오 B인 경우

• 금년도 거시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내년도 거시경제 상황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는 수입증가, 수출감소로 인해 내년중 약 36억달러 악화.

•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상승, 생산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내년중 0.9%p 추가 상승할 전망.

• 국내총생산은 수입증가, 수출감소로 인한 투자위축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내년중 0.6%p 추가 감소 예상.

■ 시나리오 C인 경우

•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시나리오 B에 비하여 증가하여, 내년중 경제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중 GDP성장률이 1.0%p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1.5%p 추가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65.8억불 악화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

2. 유가급등 등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방안

■ 유가 급등, 반도체 가격 하락 등과 같은 외부의 공급충격에 대하여 경제정책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상당히 적음.

■ 다만, 환율 및 물가 변화를 통하여 충격을 가능한 흡수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키는 노력은 필요함.

■ 한편, 경제 구조조정의 지연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함.

■ 유가 상승과 관련한 정책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예상되므로 향후 경제운용 목표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상승은 기본적으로 負의 공급충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용상승분을 가격상승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면서, 경제운용 목표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탄력세율 하향조정 등의 완충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과소비 행태를 지속시키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비가격 정책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단속비용(enforcement costs)을 초래하고 실효성 또한 의문시됨.

• 정부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이 일시적 현상일 경우 탄력세율 하향조정 등 완충정책을 펴고, 지속적 추세일 경우 국내유가 인상,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칠 계획임.

- 이러한 정책대응은 일단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고유가 추세의 지속이 예견되고 있고, 또한 유가급등 현상의 지속성 여부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대응이 현실적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임.

(거시경제연구실 남광희 연구위원)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 요 정 책
5/24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 폐지·시행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8.10월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금융기관의 동일계열기업발행 회사채 보유한도제가 도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폐지
5/26	금융감독위원회	채권시가평가제의 단계적 실시방안 결정·시행 ○현행 장부가평가펀드(1998.11.14일 이전에 설정된 적립식 투자신탁, MMF, 기타 1998.11.14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는 계속 장부가평가를 유지 ○적립식 투자신탁 및 MMF를 제외한 장부가평가펀드는 2000. 7. 1일 이후 추가 수탁·판매 금지 ○적립식 투자신탁의 경우 2000. 7. 1일 이후 수탁분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의무화 ○MMF는 신규수탁을 계속 허용하고 장부가평가 유지
5/28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 규정 개정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한도 배정대상자금에 새로 도입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취급실적을 포함
6/9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환업무감독규정 개정(6.10일 시행)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외화부채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對기업 무역 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의 20%를 포함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 ○동 비율에 대한 지도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일자	주무부처	주 요 정 책
6/19	재정경제부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 발표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부분보증(보험)하는 제도의 한시적(2001년 6월까지) 도입을 발표 ○보증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30대 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6~30대계열 기업 : 서울보증보험 보험 ○보증재원 : 총 5,000억원(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 각각 2,500억원) ○보증방법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방식 도입 ○시행시기 -신용보증기금 : 기존의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 -서울보증보험 : 금감원 보증상품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
6/19	금융감독원	투신사의 퇴직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취급 허용 발표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社外委託하는 수단인 퇴직신탁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신탁의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기업 및 국민에대해 다양한 연금상품 선택기회를 확대 ○시행시기 : 2000년 9월 이전
6/26	금융감독원	은행의 단기신탁상품 취급 허용 ○은행이 만기 3~6개월의 단기신탁상품을 통해 회사채 및 CP 인수를 늘림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반 확충을 기대

일자	주무부처	주 요 정 책
6/29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제도 도입 방안 발표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 조짐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00년 8월부터 流動性調節貸出制度를 새로이 도입 ○기대효과 -流動性調節貸出의 金利와 規模를 통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조절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中央銀行의 政策意圖를 금융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하여 통화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이 일시적 유동성부족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필요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金融市場의 安定을 도모 -차입은행에 대해서는 流動性事情과 經營 健全性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流動性 改善努力 등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은행경영의 건전화 제고
7/1	한국은행	외국환거래규정 개정(7.3일 시행)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허용 ○신용카드 해외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기준을 월 5천달러 이상에서 월 1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 ○외국환은행의 해외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시 보증보험 부보 허용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외국금융기관에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위탁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해외증권취득 허용. 단, 투자한도는 30/100 미만이며 한국은행에 해외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일자	주무부처	주 요 정 책
7/15	금융감독위원회	IMF와의 최종 정책협의 결과 중 금융·기업부문 주요내용 발표 ○정부와 IMF는 2000.6.1~ 6.14간 대기성차관협약에 따른 마지막 정책협의를 갖고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8.23경 IMF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금번 협의시 금융감독위원회와 IMF는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충당금적립, 투신사의 구조조정 문제, 기업개선작업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였는 바,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부문) ○은행시스템 전략 ·금융그룹의 설립 촉진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법안을 제출함(2000.9.30) ·2000년말 예금보험제도 개편에 대비하여 보험재정의 자립을 위해 보험요율을 조정함(2000. 12.31) ○정부소유 일반은행 ·정부는 일정조건하에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데 대한 전략을 발표함(2000.7.15)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투신(운용)사의 구조조정 추진 ○생보사 구조조정 및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 ·금감위는 대한생명에 대하여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 ·보험사는 2000.7.31부터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을 총자산의 40% 이내로 하고 동 한도를 점진적으로 감축함 ○워크아웃 여신 등 채권재조정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특수·개발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정 제정 (기업부문)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의 적정성 점검 및 활용 ○채권금융기관의 30대 재벌에 대한 신용위험 등 점검 ○대우그룹 계열사의 재무안정 도모

일자	주무부처	주 요 정 책
7/24	산업자원부	제1차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자 선정 ○17개 기업을 선정하고 금년도 145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총 379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계획을 확정 -동 17개 기업은 전문연구기관들과 투자기관들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정부기술개발자금 379억원, 민간투자 269억원, 자기자금 242억원 등 총 890억원을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하여 Global Sourcing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를 개발할 계획 ○이는 무역흑자 기반구축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부품·소재 육성정책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기술개발지원대상을 추가적으로 계속 선정할 방침이라고 발표
8/11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환업무감독규정 개정(8.21일 시행)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마련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의 최장 행정처분기간(1년) 범위내에서 위규대상 거래유형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간을 차등 적용
8/23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기업자금 안정대책 발표 ○「기업자금 사정 원활화 대책」(6.19일)의 보완 -Primary CBO발행의 실효성 제고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 -은행의 기업대출 유인 제고 -신용대출 활성화 -신속한 여신결정 유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 ○추석자금의 원활한 공급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강화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연 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US $	전 년 동 기 대 비 (%)				
1995년	8.9	11.3	10,823	9.6	0.8	11.9	18.1	8.0
1996년	6.8	6.8	11,380	7.1	8.2	7.3	9.1	6.1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6.7	-7.4	6,742	-11.4	-0.4	-21.2	-38.8	-10.1
1999년	10.7	21.8	8,581	10.3	-0.6	4.1	38.0	-10.3
1998년1/4	-4.6	-5.2	-	-11.6	0.8	-19.9	-37.7	-5.1
2/4	-8.0	-10.7	-	-13.0	-1.0	-23.9	-46.5	-7.8
3/4	-8.1	-9.5	-	-12.3	-0.2	-22.4	-40.4	-11.6
4/4	-5.9	-4.2	-	-8.9	-1.1	-18.3	-28.0	-13.9
1999년1/4	5.4	10.7	-	6.7	-2.0	-4.2	13.0	-13.6
2/4	10.8	21.5	-	10.3	-1.7	4.9	37.3	-8.5
3/4	12.8	27.3	-	12.1	0.1	7.0	48.5	-9.8
4/4	13.0	27.2	-	12.1	0.8	7.6	55.1	-10.2
2000년1/4	12.8	23.0		11.2	0.7	22.4	63.6	-7.0
2/4	9.6	16.8	-	9.0	0.5	12.9	41.3	-4.7

무역 · 국제수지

연 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1](기말)	대미환율(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85.1	239.9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6	-230.0	294.2	844.2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7	88.7	1,415.2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05.6	485.1	1,207.8
1999년	1,436.9	8.6	1,197.5	28.4	287.2	250.0	740.5	1,145.4
1999년8월	113.7	17.1	98.6	38.5	16.1	17.5	647.8	1,184.6
9월	119.7	11.3	101.3	39.6	25.9	22.1	654.8	1,218.7
10월	134.5	26.5	113.6	48.5	26.4	21.1	662.1	1,200.5
11월	142.0	21.7	117.3	40.9	22.2	22.1	696.8	1157.5
12월	149.6	20.4	125.8	45.4	21.9	14.0	740.5	1,145.4
2000년1월	121.7	31.4	125.9	45.9	5.9	4.8	767.9	1,122.1
2월	127.3	36.3	120.2	57.5	9.1	9.9	797.3	1,131.8
3월	144.4	23.8	142.1	52.7	9.5	1.9	836.5	1,106.0
4월	135.9	17.6	133.4	46.6	5.2	-3.3	846.1	1,109.2
5월	147.0	28.3	132.7	40.4	19.5	15.9	868.2	1,129.4
6월	152.8	19.2	131.6	29.0	22.8	14.6	901.8	1,115.2
7월	144.8	23.2	136.8	39.9	12.8	8.1	903.5	1,116.2
8월	150.7	32.5	134.8	36.8	-	-	914.3	1,108.8

주 :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97년, 98년, 99년 7월 데이터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 월	물 가[2]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3]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_2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평균	기간평균
1994년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년	3.2(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5.3	13.4	652.9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7.5	15.1	408.6
1999년	-2.1(0.9)	0.8(1.4)	6.3	14.7	27.9	7.6	8.9	806.8
1999년8월	-1.6	0.9	5.7	17.2	25.0	7.8	9.9	933.1
9월	-1.1	0.8	4.8	25.9	26.6	10.0	10.4	926.9
10월	-0.2	1.2	4.6	9.8	24.0	9.9	9.1	828.6
11월	0.6	1.4	4.4	14.1	26.7	11.5	9.5	950.1
12월	0.9	1.4	4.8	22.8	28.5	12.2	9.9	984.5
2000년1월	2.0	1.6	5.3	22.9	27.6	12.2	10.3	952.5
2월	2.1	1.4	5.3	3.5	28.2	13.7	10.0	902.7
3월	2.4	1.6	4.7	4.4	27.2	13.7	10.0	878.4
4월	1.9	1.0	4.1	-	29.6	15.5	9.97	779.8
5월	1.2	1.1	3.7	-	33.6	16.4	9.91	720.8
6월	2.6	2.2	3.6	7.1	36.4	17.2	9.72	795.1
7월	2.9	2.9	3.6	-	37.8	17.4	9.13	794.1
8월	2.5	2.7	3.7	-	35.1	15.9	9.00	720.1

주 : 2) (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 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4]	국내기계 수주[5]	기계류 수입[6]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4년	10.9	81.3	8.7	9.3	26.9	37.6	18.5	-1.3	16.8	-8.5
1995년	12.0	81.0	8.0	7.4	15.8	31.5	24.4	1.0	3.3	-1.2
1996년	8.7	80.8	7.0	5.8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4.7	79.2	3.2	-1.6	3.3	-22.8	5.4	-0.4	-26.2	2.6
1998년	-6.5	68.0	-12.7	-21.0	-30.5	-52.9	-42.6	-55.0	-68.2	-50.3
1999년	24.2	76.6	13.0	21.1	22.6	33.5	0.8	42.3	179.8	43.2
1999년8월	31.7	79.2	19.1	32.9	29.1	44.6	1.0	109.3	288.4	114.3
9월	20.3	79.4	14.6	21.2	10.6	48.3	36.5	81.6	204.5	111.5
10월	33.5	78.5	16.2	28.8	24.2	58.4	33.9	277.7	353.2	358.8
11월	29.0	80.3	16.2	25.4	3.7	54.0	17.5	120.7	315.8	119.2
12월	24.6	80.6	14.9	20.1	14.2	73.8	8.9	172.3	215.5	200.9
2000년1월	28.1	80.3	16.6	20.9	17.8	56.7	105.3	89.4	403.9	62.1
2월	25.4	78.7	13.9	19.2	19.8	81.0	74.5	67.1	200.7	59.8
3월	17.6	79.8	12.8	13.6	17.5	57.5	55.7	108.4	233.6	87.2
4월	16.9	76.3	11.6	16.7	25.1	60.2	-4.4	101.1	238.0	73.5
5월	20.1	80.1	14.7	19.8	10.2	61.1	18.8	-9.3	34.9	-30.4
6월	17.8	81.9	11.1	4.3	-5.8	34.8	44.3	25.2	23.1	11.4
7월	19.3	81.5	8.3	1.1	26.8	52.8	12.7	24.5	11.2	11.8

주 : 4) 내수용 5) 내수용,선박제외 6) 94년이전 수치는 선박제외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0년 9월 27일
1판1쇄 발행/2000년 9월 30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SN 1229-5396 3,000원